

2000학년도 후기
석사학위논문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의
‘영혼의 불꽃’에 관한 연구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조직신학 전공
강민구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의
'영혼의 불꽃'에 관한 연구

지도 교수 김 경 재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1년 7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조직신학 전공

강 민 구

강민구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주 심 _____인

부 심 _____인

부 심 _____인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2001년 7월

“하나님의 씨앗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씨앗은 하나님에 이르기까지 무성하게 자랄 것이며
이로써 그 열매는 하나님의 본성이 될 것입니다.”

- 에크하르트

하나님의 씨앗인 _____ 님께
이 논문을 드립니다.

목 차

I 장. 서론	1
II 장. 에크하르트 의 영혼의 불꽃	5
1. 에크하르트 의 영혼이해	5
1) 영혼의 목적	5
2) 영혼의 기능	6
3) 영혼의 속성	7
2. 영혼의 불꽃	12
1) 영혼의 불꽃의 본질	12
2) 영혼의 불꽃과 하나님과의 관계	14
3) 영혼의 불꽃이 할 수 있는 것	17
III 장. 영혼의 불꽃과 무심(無心)	21
1. 무심	21
1) 무심에 대한 정의	21
2) 모든 덕(德)보다 귀한 것	25
3) 무심의 대상	27

2. 하나님을 얻는 길 -----	28
3. 무심에 이르는 방법 -----	30
IV장. 영혼의 불꽃과 아들의 탄생 -----	35
1. 의로운 사람 -----	35
2. 아들의 탄생 -----	38
1) 탄생의 의의 -----	38
2) 탄생하는 장소 -----	42
3) 탄생을 위한 준비 -----	46
4) 탄생과 삼위일체 -----	48
3. 아들이 탄생하는 과정 -----	50
V장. 영혼의 불꽃과 합일 -----	57
1. 합일 -----	57
2. 가난 -----	60
3. 뚫고 나감 -----	64
VI장. 결론 -----	67
참고문헌 -----	70

I 장. 서론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이해에는 두 가지 큰 줄기가 있다. 하나는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로 그 사이에는 깊은 심연이 있으며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께로 이를 수 없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인간은 하나님과 다른 존재이지만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로 이를 수 있는 능력이 인간의 심령 속에 이미 내재해 있다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에 있어서 인간은 원죄를 지닌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고 하나님은 홀로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인간은 유한하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인간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 받는다. 이에 오직 예수그리스도의 은총으로만 구원을 얻게 된다.

이러한 의식은 대부분의 개신교 신자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다. 하지만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종교체험 -그리스도인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겪는- 은 때때로 위에서 열거한 교회의 전통적인 가르침 및 여러 가지 교리들과 맞서게 된다. 그러한 체험을 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 새로운 관점으로 이해하게 된다.

체험과 전통이 맞설 때, 기독교인들이 흔히 취하는 방법은 체험을 버리고 전통을 택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자신의 체험을 따르며 전통과 맞설 때도 있다. 그렇게 될 경우 경직되어 가는 전통이 새롭게 거듭나가거나 아니면 전통의 승리(?)로 끝나게 된다. 교회의 역사는 이러한 체험과 전통 사이에서의 갈등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16세기에 일어난 종교

개혁 운동이 그러했으며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에크하르트¹⁾ 역시 그 경우에 해당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 1993년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있었던 변선환 교수의 교수직 해임 사건을 들 수 있겠다.

그것은 다른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교회 현장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갈등이기도 하다. 이러한 갈등은 본질적으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서 오는 긴장과 갈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런데 바로 에크하르트에 의해 그 문제의 해결점이 밝혀진다.

에크하르트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피조물, 또는 이 둘의 관계는 절대 유와 절대 무, 있음과 없음, 분리와 일치, 구별과 비구별, 유사와 비유사라는 변증법적 긴장 속에 놓여 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피조물의 절대적인 질적 차이를 강조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피조물의 형이상학적 일치²⁾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언뜻 보면 서로

1)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로 더 잘 알려진 요하네스 에크하르트(Johannes Eckhart, 1260-1327)는 호크하임에서 태어났다. 마이스터라는 함은 라틴어의 "선생(magister)"이라는 의미로 그 당시 학문분야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인정을 받았다는 의미이다. 독일 도미니크 수도회의 최고 위치에 올랐던 그는 저명한 설교자로서 각광받았으나 적대관계에 있었던 프란체스코 수도회에 의해 이단 시비에 휘말리며 자신의 정통성을 변론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던 도중에 사망했다. 결국 1329년 3월 27일, 교황 요한 22세는 In agro dominico라는 교서를 통하여 에크하르트의 저작중 28개의 명제를 정죄하며, 그 중 15개를 이단적인 것으로 선포하고, 나머지는 경솔하고 편협한 것으로 판결한다. 이러한 까닭에 그의 저작은 금서로서 폐기처분 되어 오늘날 일부분만 전해져 내려올 뿐이다. Raymond B. Blakney, 『Meister Eckhart』 이민재 역,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2』 (서울: 다산글방, 1994) - 이하 ME 2 로 표기함. 140-159.

2) 에크하르트는 삶의 용기를 잃은 헝가리 여왕을 위해 쓴 '하나님의 위로의 서(書)'라는 설교문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본질적인 일치를 말하고 있다. 그 사실은 실로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열쇠가 된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나 창조되지 않으시고 이 세상이라는 집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가족에 우리가 속해 있다. 이것은 신약 성서의 주요 사상이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불렀던 예수에게서 나온 것이다. '하나님과 인간의 일치'는 에크하르트에게 중요한 사상이다. Raymond B. Blakney, 『Meister

모순되는 진술들 같지만, 세밀하게 관찰해 보면 모순되는 진술들 배후에 기독교 사상의 핵심을 꿰뚫는 심오한 통찰이 담겨있다.

즉, 하나님을 자신의 존재의 기반으로 갖지 않는 인간은 덧없는 삶을 살 수 밖에 없으며, 하나님을 자신의 존재와 삶의 중심으로 살아갈 때만 즉,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진정한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점은 기독교의 기초적인, 그러면서도 혁명적인 자각이다.

에크하르트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완전한 합일’을 이룬 성숙한 인간이 되도록 자극하고 부추긴다. 여기서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완전한 합일을 이룰 수 있는 접착점이 바로 ‘영혼의 불꽃’이다.

이에, 신자(信者) 개개인은 ‘영혼의 불꽃’에 대한 이해와 통찰을 통해 자신의 존재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고 또한, ‘영혼의 불꽃’을 깊이 체험함으로써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고 세상으로부터 받을 수 없는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요1:12)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며 그리스도인의 영성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그렇게 ‘불꽃’을 체험하는 사건이 오늘의 교회 속에서 일어날 때, 교회는 하늘과 땅이 원하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점이 에크하르트가 죽은 지 673년이 흐른 지금 이 시기에 ‘영혼의 불꽃’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그것을 직접 발견하고 몸소 체험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에크하르트의 사상을 ‘영혼의 불꽃’을 중심으로

Eckhart』 이민재 역,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1』 (서울: 다산글방, 1994) - 이하 ME 1 로 표기함. 20-21.

로 알아보려고 한다.

우선, II장에서는 ‘영혼의 불꽃’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에크하르트가 이해한 ‘영혼’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그리고 나서 ‘영혼의 불꽃’에 대한 정의와 ‘영혼의 불꽃’과 하나님과의 관계, ‘영혼의 불꽃’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III장에서는 ‘영혼의 불꽃’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에게 먼저 갖추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무심(無心)’을 중심으로 알아본다.

그 다음, IV장에서는 ‘영혼의 불꽃’의 열매라고도 할 수 있는 ‘아들의 탄생’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특히, ‘영혼의 불꽃’과 ‘아들’과의 관계와 아들이 탄생하기까지의 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마지막, V장에서는 ‘영혼의 불꽃’의 궁극적 목표인 ‘합일’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II 장. 에크하르트의 영혼의 불꽃

1. 에크하르트의 영혼이해

1) 영혼의 목적

에크하르트가 바라본 영혼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피조물 가운데서 활동하기 원하시며 피조물에게 자신을 주기 원하신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지으셨을 때, 그들은 매우 작았고 비좁았기 때문에 그들 중 어떤 것 속에서도 활동하실 수 없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닮고 자신과 매우 유사한 영혼을 만드심으로써 영혼에게 자신을 주실 수 있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이 자신의 것인 것처럼 나의 것이 되기 위해 당신 자신을 나에게 주셔야 한다.’³⁾

이렇듯이 영혼은 하나님과 가장 유사하며 영혼 안에서 하나님의 활동이 이루어진다. 또한 영혼은 하나님을 받아들인다. 하나님은 영혼에 자신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창조활동이 일어난다.

3) ME 1, 308.

2) 영혼의 기능⁴⁾

에크하르트⁵⁾는 영혼의 기능을 세 가지로 든다. 첫째는 직관⁵⁾이요, 둘째는 이라시빌리스(irascibilis)- 이것은 위로 솟아오르게 하는 요소이다-셋째는 의지이다. 그 기능들을 하나씩 살펴보자.

먼저 직관의 기능이다. 이 직관에 의해 영혼이 참 진리를 깨닫게 될 때, 그 영혼은 빛이라 불려지게 된다. 하나님 역시 빛이시므로 하나님의 빛이 영혼 속으로 쏟아질 때 빛과 빛이 섞이듯 영혼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두 번째로 솟아오르게 하는 기능(upsurging agent)이다. 이 기능을 통해 인간의 영혼은 위를 향하도록 애쓰게 된다. 이 기능에 대해 에크하르트는 다음과 같은 설명을 덧붙인다.

만일 영혼이 위를 바라보지 않고 걸논질한다거나 위를 향한 길에서 벗어나면 그것은 죄입니다. 영혼은 자기 자신 위에 무엇인가 있다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영혼은 자기 자신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조차 견디지 못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영혼 속에 계시지 않고 영혼이 하나님만큼 선하지 못하다면 영혼은 결코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혼 안에서 영혼의 기능에 의해 파악됩니다. 그것이 피조물에게 허락되는 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우리

4) ME 1, 272-273.

5) 철학에서 추리나 관찰, 이성이나 경험으로는 얻지 못하는 인식을 얻을 수 있는 힘을 뜻하는 용어다. 직관은 다른 원천에 의해 얻지 못하는 인식을 설명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근원적이고 독자적인 인식 원천으로 여겨진다. 필연적 진리와 도덕원리들의 인식은 종종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설명된다. 『브리태니커 세계 대 백과사전』 (서울: 한국브리태니커, 1993).

는 또 다른 하나의 거룩한 덕인 희망에 대해 말하게 됩니다.⁶⁾

이 기능으로 인해 영혼은 하나님께 신뢰를 두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존재 안에서 불가능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상상하게 된다.

세 번째로 내적 의지의 기능이다. 이것은 얼굴이 항상 앞을 향하고 있듯이 거룩한 의도 속에서 영혼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내적 의지는 자신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만들어 낸다. 바로 그것에 의해 하나님은 영혼 속으로 이끌려 들어오시며 영혼 역시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3) 영혼의 속성

인간의 영혼에 대해서는 종교의 구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 왔다. 영혼에 대한 전통적인 기독교 이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지만 어디까지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지만 타락했으며,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한 속죄와 구속의 은총이 필요하다. 그런데 에크하르트에 그러한 전통적인 이해를 인정하면서도 특이한 점을 말한다.

에크하르트에게 있어서 인간 영혼과 하나님은 동질성을 지닌다. 즉, 영혼의 근거와 하나님의 근거는 하나이며 같은 본질인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에크하르트에 영혼이 가지고 있는 속성

6) ME 1, 272.

을 다섯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혼은 지금 여기에서 분리되어 있다.⁷⁾

‘지금’과 ‘여기’란 시간과 장소에 대한 상징이다. 즉 영혼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다는 의미이다.

둘째, 영혼은 다른 것들과는 다르게 자생적이다.

영혼의 기능 중 지성은 아무 것도 닮지 않았다고 한다. “그것은 하나님을 닮았을 뿐이다. 영혼의 기능이 아무 것도 닮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도 아무 것도 닮지 않은 것이다.”⁸⁾

셋째, 영혼은 순수하며 오염되지 않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본질이 오염과 불순함을 허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영혼의 기능 곧 지성은 다른 존재들을 혼합한 것도 섞은 것도 아니다. 영혼은 더럽혀지지 않았으며 순수하지 못한 것은 그 어떤 것도 그 안에 머물 수 없다.⁹⁾

넷째, 영혼은 무의식적이며 자기 비판적이다.

하나님은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만 거주하시는 분이다. 그렇기에 지성은 하나님을 찾으면서 안을 지향한다 그러나 의지는 바깥으로 나가 영혼이 사랑하는 하나님께로 간다. 그 과정이 무의식적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 비판적인 속성은 색깔에 대한 인식을 예로 들어 설명한다.

만일 내가 색깔을 보려 한다면 나는 내 속에 그 색깔에 민감한 어떤 것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색의 본질을 이미 갖고 있

7) ME 1, 278.

8) ME 1, 279.

9) ME 1, 280.

지 못하다면 나는 결코 그 색깔을 볼 수 없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만일 내가 하나님을 보는 빛이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보시는 것과 동일한 빛이 아니라면 나는 하나님을 결코 볼 수 없을 것입니다.¹⁰⁾

다섯째, 영혼은 하나의 상(image)이다.¹¹⁾

하나의 관념은 본질상 또 다른 관념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그들을 구별하기란 불가능하다. 물론 우리는 열은 별도로 하고 불에 대해 생각할 수 있으며 또 불은 별도로 하고 열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빛은 제쳐두고 태양을 그리고 태양을 제쳐두고 빛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관념들 사이에는 진정한 구별이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관념들은 동일한 방법으로 품어지며 함께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만일 하나님과 유사하게 만들어진 상(관념)이 죽는다면 하나님의 상(관념) 역시 죽게 될 것이다.

신성(Godhead)¹²⁾의 모든 구석을 들여다보고 뚫고 들어가는 지성은

10) ME 1, 280.

11) ME 1, 281-282.

12) 에크하르트(Eckhart)는 ‘하나님’과 ‘신성(神性)’을 구분하며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을 말한다. 창조와 역사 안에 활동하시는 하나님(God)과 하나님 자신의 본래의 모습인 ‘신성(Godhead)’을 구분한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존재’ 또는 진, 선, 미의 근원으로서 창조의 하나님이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활동하시고, 인간의 구속역사에 참여하시는 계시의 하나님 또는 내재의 하나님이시다. ‘신성’은 하나님의 절대적 초월성을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인간의 어떠한 이름이나 개념이나 상징이나 언어로도 표현불가능한 하나님의 자기 고유의 본질적 실재성을 말한다.

하나님의 ‘절대적 초월성’의 이 개념은 고대 교부 시대로부터 줄기차게 흐르고 있는 개념인데, 이 사상은 본래 출애굽기에 나타난 “야웨” 하나님, 즉 하나님의 ‘자기 자신성’(I am that I am)과 ‘자존성’(自存性)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6세기 초의 디오니소스 아레오파지트의 ‘하나님 너머의 하나님’(God beyond God)의 사상, 즉 하나님은 모든 이름과 언어적 표현들과 본성까지를 초월하신다는 사상을 거쳐, 에크하르트의 ‘신성’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 James Clack, *Meister Eckhart*, 37, 류기중, 기독교 영성, 118 재인용.

아버지의 마음속에서 아들을 보며 자신의 중심 속에 아들을 모신다. 이 일을 끝까지 밀고 나아가는 지성은 선에도 지혜에도 진리에도 만족하지 않으며 결코 하나님에 대한 관념에 더 이상 만족할 수 없다. 지성은 하나님과 진리에 대한 관념을 초월해 있는 것을 헤치고 나아가 사물의 중심에 도달하기까지 다시 말해 이 한 처음에(in principio) 곧 모든 시작의 시작이며 모든 선과 진리의 근원이자 원천에 도달하기까지 결코 안식하지 못한다.

또한 영혼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혼은 성령에 의해 직접 인도되는 것이다. 영혼도 마찬가지로. 영혼은 자신에 대해 갖고 있는 것과 동일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에 대해 갖고 계신 사랑이 없다면 성령은 결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성령의 열정인 동시에 꽃피어남이며, 그러한 성령 안에서 영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¹³⁾

그렇다면 영혼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영혼이 차지하는 위치는 어떤 것인가? 이 점에 있어서 에크하르트는 하나님과 영혼처럼 완전한 일치를 이루는 것은 없다고 말한다. 그 일치는 하나님 안에서의 세 위격의 일치보다 더 완전하다. 하지만 하나님과 영혼이 천편일률적으로 동일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영혼은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물로서의 성격을 벗어나야만 한다.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피조물은 어떤 과정으로 피조물의 성격을 탈피하는가? 하나님이 영혼을 건드리실 때, 그리고 영혼으로 하여금 피조물의 성격을 탈

13) ME 1, 344.

피하게 하실 때 영혼은 하나님 자신만큼 그 등급이 높아지게 된다. 즉, “피조물을 관상하시면서 하나님은 그것에 존재를 주시며, 하나님을 관상하면서 피조물은 자신의 존재를 받는다.”¹⁴⁾

에크하르트는 영혼 안에 두 가지 종류의 눈이 있다고 한다. “하나 는 안을 보며 다른 하나는 바깥을 본다.”¹⁵⁾ 내적 눈은 본질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존재를 취한다. 외적 눈은 피조물을 향하고 있으며 그 피조물의 외면적 형태를 지각한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안으로 돌려 하나님을 인식하되 하나님 자신이 당신 자신을 인식하는 것에 의해, 곧 그분의 존재의 뿌리에서 인식한다면, 이때 우리는 모든 피조물에서 자유롭게 되며 진리의 성안에 확실히 거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에게 기쁨과 놀라움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그러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요인이 인간의 영혼 안에 있다는 것이다.

에크하르트는 그 점을 이렇게 표현한다.

영혼은 본질을 인식하는 지성적인 것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어디이든 그곳에는 영혼이 있으며, 영혼이 있는 곳이 어디이든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¹⁶⁾

에크하르트가 말하는 지성적인 힘은 영혼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요소이다. 하나님은 지성 안에서 거룩하게 빛나신다. 지성이야말로 하나님의 성전이다.¹⁷⁾ 지성에는 다른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14) ME 1, 346.

15) ME 1, 349.

16) ME 1, 347.

17) ME 1, 355.

능력이 있다. 그 능력은 인간을 하나님과 하나되게 한다. 그 능력이 바로 영혼의 불꽃이다.

2. 영혼의 불꽃

1) 영혼의 불꽃의 본질¹⁸⁾

에트하르트(Emmanuel Kant)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인간의 일치를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결코 “나 곧 사람들이 형제 에크하르트라고 부르는 이 세상적 개체로서의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환상에 사로잡히지 않았다. 에크하르트는 창조자와 피조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측량할 수 없는 차이를 결정적으로 표현했다. 그는 피조물 그 자체로는 아무 것도 아니라고 말했다.¹⁹⁾

그러나 무한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인간이 같은 류(類)에 속한 것이라면, 인간의 외적인 자기정체성을 끊임없이 정복함으로써 인간의 가장 내면적인 자아 속에 있는 존재의 신적 핵을 해방시키는 일은 가능하다. 이기심이라는 껍질 속에 감춰져 있는 이 신적인 핵이 바로 영혼의 불꽃이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의 싹이자 하나님의 씨앗이며, 신적 은총의 요체인 바 인간은 그것으로부터 가치와 희망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다.²⁰⁾

에크하르트는 영혼의 불꽃에 대한 설명에서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18) ME 2, 271-274.

19) ME 2, 105 (변론 ix-30), 114 (변론 ix-46).

20) ME 1, 21.

글을 인용한다.

나는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을 깨닫고 있다. 하나의 광채와 같이 내 영혼 앞에서 춤추고 있는 무엇인가를. 그것이 무엇인지 완벽한 인내심을 가지고 밝힐 수 있다면, 그것은 영원한 생명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그것은 숨은 듯하다가도 다시 나타나곤 한다. 그것은 영혼에게서 모든 것을 훔치려는 듯 도적같이 다가온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을 드러내 보이면서 관심을 끌기 때문에, 영혼을 유혹하려 하며, 영혼으로 하여금 자신을 따르게 하려고 영혼에게 자아를 제거하기 원하는 것임에 틀림없다.²¹⁾

영혼의 불꽃은 은폐되어 있다. 이 점은 지혜서를 인용하면서 설명한다. “무거운 침묵이 온 세상을 덮고 밤이 달려서 한고비에 다다랐을 때에 하늘의 옥좌로부터 주님의 전능하신 말씀이 마치 사정없는 전사처럼 멸망한 땅 한가운데로 뛰어 들었다.”²²⁾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운 침묵’과 ‘밤’에 다가온다는 것은 바로 그것의 ‘숨겨져 있음(은폐성)’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²³⁾

영혼의 불꽃은 어떤 하나의 기능이 아니라 여러 기능들을 가능케 하는 영혼의 근거 또는 본질인 것이다. 그것은 완벽하게 영적인 것이며, 인식되기보다는 잘 인식되지 않는 것이다. 시간적인 것이나 육체적인 것은 그것을 건드릴 수 없다. 만일 우리가 오로지 그 안에만 존재한다면, 우리는 늙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것은 만유를 포함하되, 그 본질을 포함한다. 그것은 모든 피조물들의 상(像)들을 포함하는데, 이때의 상들은 ‘상없

21) ME 1, 176.

22) 지혜서 18:14.

23) ME 1, 176.

는 상들’이다. 또한 그것은 피조물들과 아무 것도 공유하지 않는다. 만일 이름이나 인격을 갖고 계신 한, 하나님 자신조차도 그 안을 응시하실 수 없다. 그것은 감각적인 것과 이성적인 것을 모두 초월한다.

2) 영혼의 불꽃과 하나님과의 관계

‘불꽃’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심연의 다리를 놓는 것이다. 불꽃은 하나님과 영혼 사이를 묶는 끈이다. 자신의 지성으로 인해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존재의 구별을 하나님과 공유한다. “아무 것보다도 닮지 않음으로써 이 능력은 하나님을 닮는다. 하나님께서 아무 것보다도 유사하지 않으신 것처럼 이 능력 역시 아무 것보다도 유사하지 않다.”²⁴⁾

아들 또는 의인으로서의 인간의 지성(이해)은 하나님의 지성과 차이가 없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식하시는 지식과 동일한 지식이 무심에 이른 영혼의 지식인 것이다. 거기에는 아무런 차이도 없다.”²⁵⁾

에크하르트는 영혼의 불꽃을 심지어 창조된 것이 아니라고도 말한다. 바로 그 점에서 영혼의 불꽃의 능력은 우리를 놀라게 한다.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선이라는 옷을 벗겨 하나님을 벌거벗은 채로 보면서, 하나님을 자신의 대상으로 추구한다. 그것은 그분을 바라보되 이름 없는 분, 존

24) *Meister Eckhart: Die deutschen Werke*, ed. by Josef Quint, vols(이하DW이라 칭함). III, 171. ME 2, 275 에서 재인용.

25) DW I, 162. ME 2, 275 에서 재인용.

재를 넘어선 분, 광대한 사막과 고독이신 분으로 바라본다. 영혼의 불꽃이 하나님과 결합된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약한 표현이다. 그것은 그분과 그저 하나이며 그 어떤 차이나 구별도 갖지 않는다. 무심(無心)에 이른 사람에게 있어서 영혼의 불꽃이 갖는 지식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에 대해 갖는 지식과 다를 바 없다.

인간으로 하여금 말씀과 하나이며, 신성의 전체성과 하나이도록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인간의 인식 능력, 즉 ‘우월한 이성적 능력’ 또는 ‘영혼의 불꽃’ 안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인간의 참 지성인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인식은 창조되지 않은 것이며, 창조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과 하나인 인간의 지성은 사물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

에크하르트는 영혼의 ‘불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묘사하면서 인식에 있어서 하나님과 인간 영혼의 하나임을 작용 안에 나타나는 하나임(oneness)으로부터 생기는 일치를 강조한다.²⁶⁾

그는 작용 안에 나타나는 하나임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만일 나의 눈이 열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의 눈이며, 닫힌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똑같은 눈입니다. 눈 속으로 들어오며 나가는 것은 나무가 아니라, 그 나무에 대한 나의 상(像)입니다. 만일 나의 눈이 본질적으로 하나이며 단순하다면, 그런데 그 눈이 열리고 나무 조각에 시선을 던진다면, 그 눈과 그 나무는 그들 그대로 남아 있겠지만, 시각작용 안에서 그들은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눈은 그 나무이

26) ME 2, 274-275.

며, 그 나무는 내 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 나무가 비질료적인 것, 즉 순전히 영적인 것이라면, 우리는 시각작용에 있어서 그 나무와 내 눈은 하나의 존재 안에 내재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것이 물리적 대상들에 대해 참이라면, 영적인 대상들에 대해서는 훨씬 더 참일 것입니다. 내 눈이 내 귀와 공유하고 있는 것보다는 - 내 눈과 귀는 존재를 공유합니다 - 바다 저 편에 있어서 내가 결코 본 적이 없는 양의 눈과 내 눈이 공유하고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이유는 양의 눈의 작용은 내 눈의 작용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눈과 내 귀에 그러한 것보다 그 둘 - 낸 눈과 양의 눈 - 에 더 많은 것을 공통된 것으로 귀속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눈의 작용과 내 귀의 작용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²⁷⁾

이 인용문에서 우리는 인식을 통한 두 종류의 동일성을 말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인식작용에 있어서 인식주체와 인식 대상의 능동적-수동적 관계를 통해 성취된 일치이다. 인식주체와 인식대상은 서로 분리되는 것이지만, 주체의 인식 작용과 대상의 인식되는 작용에 있어서 철저히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 점은 영혼의 불꽃의 탄생이라는 작용 속에서 별거벗은 하나님을 지각할 때 일어나는 일에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인식 주체와 인식 대상 모두 완벽하게 영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작용 안에서의 합일은 인식 작용 일반에서 성취되는 것보다 본질적으로 훨씬 차원이 높다. 그렇지만 여기서도 인식 주체와 인식 대상의 분리성은 강조되어야 한다.

두 번째 동일성은 근본적으로 동일한, 그러나 분리되었을 뿐만 아

27) DW II, 416-417. ME 2, 276 에서 재인용.

니라 본질적으로는 다른 종류의 존재들 안에 있는 두 능력 혹은 두 기능의 활동이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무한한 거리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미에서 그 둘은 동일하다. 하나님과 인간은 모두 인식한다. 모든 피조물의 한 부분인 인간, 그리고 인간의 영혼의 불꽃은 시각작용이나 청각작용 같은 다른 능력보다 훨씬 고귀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할 수 있는 작용의 관점에서 보면, 불꽃은 그것이 인간의 전체성과 하나인 것보다 하나님과 훨씬 더 하나이다.²⁸⁾

3) 영혼의 불꽃이 할 수 있는 것

영혼의 불꽃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전에 에크하르트가 말하는 지성의 능력을 알아보자.

지성은 하나님의 존재를 꿰뚫고 들어간다. 그것은 존재 속으로 가라앉으며, 하나님을 순수 존재로 받아들인다. 무엇보다도 지성은 하나님에게서 선과 존재 그리고 그분께 붙여진 모든 이름들이라는 살갓을 벗긴다.²⁹⁾

우리가 하나님을 ‘존재’³⁰⁾로 생각할 때 우리는 그분에 대해 그분이

28) ME 2, 276-277.

29) DW, 152. ME 2, 277 에서 재인용.

30) 에크하르트에 의하면 하나님은 존재로서 만물은 신의 본질인 존재를 받아들임으로써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며, 또한 하나님은 존재 곧 있음의 근거로서 모든 피조물 안에 내재할 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그들 자신들보다 더 가까이 계시다. “존재로서의 하나님은 내가 나 자신에게 가까운 것보다 더 나에게 가까이 계시다(God is nearer to me than I am to myself)”

Kenneth Leech, 『Experiencing God』 (San Fransisco: harper & Row, 1985),

거하시는 성체 안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는 존재도 있으며, 그곳은 그분이 거하시는 본거지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의 성전 어디에 계시는가? 지성 속에 계신다. 지성이야말로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빛나시는 곳은 이곳 이외에는 아무 데도 없는 것이다.³¹⁾

지성은 그 너울을 옆으로 제치며 하나님을 적나라하게 즉 선이라든지 존재라든지 모든 이름을 벗긴 채로 지각한다.³²⁾

에크하르트가 매우 강조하는 인간 지성의 한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매개성이다. 에크하르트는 이것을 제1질료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제1질료란 형상과 결합하여 현실의 물질적 대상을 낳는 것이다. 그러나 그 자체로는 자신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형상을 기다리는 잠재성 내지 수동성을 의미한다. 눈이 색깔을 보기 위해서는 모든 색깔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하는 것처럼, 지성은 모든 대상을 인식하기 위해서 그 어떤 대상들과도 공통된 것을 가져서는 안 된다. 지성 그 자체는 아무 것도 아니며, 인식은 존재의 어떤 형태가 아니라는 결론을 이끌어 낸다.

에크하르트는 열등한 이성적 능력에는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영혼의 최고의 요소’ 또는 ‘고귀한 영혼’이라고 불리는 우월한 이성적 능력이 에크하르트의 주된 관심이기 때문이다. 고귀한 영혼은 세 가지 활동 즉 동물적, 지적, 신적 활동을 가지고 있다고도 한다. 신적 작용은 고귀한 영혼이 하나님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형될 때(고린도후서 3:18) 일어난다. 이러한 우월한 이성적 기능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것이다.

326, 류기중, 『기독교 영성』 (서울: 도서출판 열림, 1994) 121에서 재인용.
31) ME 1, 355.
32) ME 1, 356.

또 여러 글 - “지성은 무한을 건드린다”³³⁾ “인간은 지성을 통해 형성되는 그런 존재이다”³⁴⁾ - 에서 지성이 의지보다 중요하며, 지성이야말로 인간으로 하여금 영원한 행복을 궁극적으로 성취하게 하는 것이라는 도미니크회³⁵⁾의 입장을 수호하기도 한다.

에크하르트가 자신의 모국어 설교에서 누누이 언급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우월한 이성적 능력’인데,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 그는 여러 가지 다른 어휘와 표상들을 사용한다. 그것은 영혼의 능력이며, 고귀한 힘이며, 영혼의 성이며, 영혼의 빛이며, 신적인 빛이며, 불꽃이며, 영혼의 머리이며, 가장 귀한 가지이며, 나무의 관(冠)이다. 비록 이것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것이다, 저것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의를 초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에크하르트는 ‘영혼의 불꽃’을 우월한 이성의 능력과 동일화시키곤 하는데, 어찌 생각해 보면 그러는 것이 그 당시 중세 심리학에 있어서는 그리 새로운 것이 아닌 듯 하지만, 때로는 그의 동시대인들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것이기도 했다.³⁶⁾

불꽃은 하나님께 붙여진 모든 긍정적인 이름들이 포함하고 있는

33) Meister Eckhart: Die lateinischen Werke, ed. by E. Benz, J. Koch, et al., vols(이하 LW라 칭함). IV, 105. ME 2, 270 에서 재인용.

34) LW I, 579. ME 2, 270 에서 재인용.

35) 공식적인 이름은 탁발전도수도회, 또는 전도회라고 불리며 프란치스코회와 함께 로마 카톨릭교회 내 4대 탁발수도회의 하나로 1215년 도미니쿠스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이 수도회가 가진 특이한 점은 이전에는 주교들과 주교들을 대리하는 자들(곧 사제)만이 특권으로 또 독점적으로 가졌다고 생각되던 기독교 교리의 전도를 이 수도회도 위임받게 된 것이다. 이들은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사상을 견지해 나아간다. 이 사상의 정점은 알베르투스 마그누스와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해 형성된다. 이들은 인문주의에 대해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 주고 있고, 이후 대학의 변창과 학문의 발전에 커다란 일익을 담당하게 된다.

『기독교 대 백과사전』 (서울: 기독교문사, 1984)

36) ME 2, 268-270.

모든 구별들을 벗긴 상태에서 하나님을 본다. 지성은 하나님을 “그분이 옷을 갈아입는 방에서 벌거벗은 상태로, 그리고 구별이 없는 하나로서” 바라본다.³⁷⁾

또한 그것은 하나님을 그분의 참 존재 안에서 완전히 벌거벗은 상태로 받아들인다.³⁸⁾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벌거벗은 존재 안에서 하나님을 파악한다.³⁹⁾

불꽃은 하나님을, 그분의 텅 빈 고독 속에서, 그리고 그분의 광야에서 감지한다. “그것은 이름을 가졌다가보다는 이름을 붙일 수 없는 어떤 타자성이며, 알려지기보다는 알려지지 않는 광야입니다.”⁴⁰⁾

결국 영혼의 불꽃은 영혼으로 하여금 아들을 받아들이도록, 낳도록 하는 능력이다.

이러한 능력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 그 문제는 다음 장에서 다루도록 한다.

37) DW II, 217. ME 2, 277 에서 재인용.

38) DW I, 222. ME 2, 277 에서 재인용.

39) DW I, 182. ME 2, 277 에서 재인용.

40) DW II, 66. ME 2, 277 에서 재인용.

III장. 영혼의 불꽃과 무심

1. 무심(無心)⁴¹⁾

1) 무심에 대한 정의

에크하르트에 의하면 인간과 하나님의 합일의 가능성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과 지성을 소유한 데 있다. 그러나 인간의 영혼은 육체와의 결합, 그리고 육체적 감각과 욕망 등에 의해 혼탁해지고 어두워져서 하나님과 창조 세계의 참모습과 그 신비를 알 수 없게 되어 있다. 하나님 특히 신성(Godhead)은 존재의 심연, 절대 침묵, 순수 영, 텅 빈 없음이므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그와의 합일을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영혼도 자기 비움, 자기의 무(無)화, 자기 부정 또는 자기 포기, 영혼의 순수화가 이루어져야 한다.⁴²⁾

이렇듯이 하나님과의 일치를 위해서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것이

41) 독일어 원문으로는 “Abgeschiedenheit”란 단어로 R.Blakney는 “Disinterest (무심)”로 번역하였고, Matthew Fox는 “Letting go(놓임)”로 번역하였고, B.McGinn은 “Detachment(초탈)”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 개념은 고대 교부 시대로부터 사용된 “apatheia”라는 ‘자기부정’ 또는 ‘자기포기’의 개념으로, 기독교 영성사에 있어서 오랜 역사를 가진 개념이다.

본 논문에서는 “무심”이 ‘자기부정’과 ‘자기포기’에 대한 에크하르트의 생각을 잘 표현한다고 보고 R.Blakney의 표현을 사용하고자 한다.

42) James M. Clark, *Meister Eckhart* (London: Tomas Nelson & Sons, Ltd., 1957), 61. 류기중, 기독교 영성(서울: 열림, 1994), 128 재인용.

바로 무심인데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접근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그 어떤 덧없는 애착이나 슬픔이나 명예나 비방이나 악에도 움직여지지 않는 마음이다. 이는 미풍에 전혀 흔들림 없는 장대한 산과도 같다고 한다. 아무 것에도 영향받지 않는 무심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게 한다. 사람의 마음속에 세상적인 여러 가지 것들로 가득 채우는 것은 하나님을 비우는 것이지만, 그런 것들을 비우는 것은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기 때문이다.⁴³⁾

에크하르트는 그의 책, ‘하나님의 위로의 서(書)’⁴⁴⁾에서 ‘인간이 고통과 고뇌와 아픔을 겪을 때 왜 위로를 받지 못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바깥 것들을 토대로 하는 우리인간들의 삶의 방식 때문이며, 또한 피조물들을 비우지 못했거나 순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냉담함 때문이라고 한다.⁴⁵⁾ 즉, 인간이 무심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다.

순종하면서 자신을 정화시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마땅히 찾아오실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자신의 뜻(의지)을 갖고 있지 않을 때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위해 하시려는 것을 그를 위해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나의 성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나의 의지를 포기하고 내 자신의 뜻을 전혀 갖지 않을 때, 마땅히 하나님은 나를 위한 뜻을 가지실 것이다. 왜냐하면

43) ME 1, 154.

44) 헝가리 왕 알베르트의 딸 아그네스를 위해 쓰인 책. 1305년에 그녀의 사촌이었던 프랑스 공주 블랑슈가 죽었으며, 1308년에는 그녀의 아버지가 살해되었고, 1313년에는 그녀의 어머니가 죽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위로의 서’는 아그네스를 위로하기 위해 헌정된 작품이다.

45) ME 1, 111.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소홀히 여기신다면 결국 당신 자신을 소홀히 여기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나를 위해 선택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 선택하신다.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할 때 나를 향한 그분의 뜻은 그분 자신을 향한 그분의 뜻과 동일하다.⁴⁶⁾

이러한 무심에 의해 영혼은 통일성을 갖게 되며, 그것에 의해 지식은 순수해지며, 그것에 의해 마음은 불타오르며, 그것에 의해 영혼은 각성되며, 그것에 의해 열망들은 일어나며, 그것에 의해 덕은 강화된다. 무심은 하나님 지식을 가져온다. 무심은 피조물을 제거한다. 무엇보다도 무심에 의해 영혼은 하나님과 결합한다.⁴⁷⁾

이렇듯이 무심은 인간이 하나님과 결합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단계이며 무심의 상태에 이르러야 ‘영혼의 불꽃’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에크하르트는 무심을 ‘순순한 마음’으로도 표현한다.

놀라운 결과를 낳는 거의 전능에 가까운 가장 힘있는 기도와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행위는 순수한 마음에서 생겨난다. 마음이 순수하면 할수록 기도와 행위는 더욱 힘있고 더욱 고상하며 더욱 유용하고 더욱 찬양 받을 만하며 더욱 완전하다. 순수한 마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순수한 마음이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얽매임이 없는 마음, 근심 걱정이 없는 마음, 구애받지 않는 마음, 어떤 일이나 자기의 뜻을 고집하지 않으며 자신을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뜻에 자신을 내어 맡기는

46) ME 1, 32.

47) ME 1, 162.

마음이다. 어떤 일에도 너무 몰두하지 말아야 한다. 순순한 마음에 의해 많은 결과를 낼 것이며 한 차원 높여지게 된다.⁴⁸⁾

에크하르트는 순순한 마음에 의해서 자유를 얻게 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무엇보다 먼저 자신에서 시작하라! 자기 자신을 망각하라! 먼저 자기 자신에서 떠나지 않으면 그대들이 그 무엇을 떠나게 되든 여전히 장애물들과 안식 없음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또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부인하는 것으로 시작하게 하라. 그들은 그럼으로써 다른 모든 것을 부인하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이 하나의 왕국과 심지어는 온 세상을 포기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기적이라면 그는 아무 것도 포기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지만 그가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면 그가 무엇을 갖고 있든지, 그것이 부(富)든 명예든 다른 어떤 것이든, 그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다.⁴⁹⁾

즉, 우리가 자신의 행동에서 얼마만큼이나 자아를 제거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은 우리들의 행동 속으로 많지도 적지도 않게 들어오시며⁵⁰⁾ 그것에 의해 우리는 자유라는 선물을 얻게 되는 것이다.

48) ME 1, 33-34.

49) ME 1, 35.

50) ME 1, 36.

2) 모든 덕보다 귀한 것

(1) 무심과 사랑⁵¹⁾

에크하르트는 사랑보다 무심을 더 고귀하게 여긴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일은 사랑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인데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움직이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 움직이시는 것이 더 유익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나를 훨씬 더 잘 다루실 수 있으며, 나와 결합하실 수 있다. 내 쪽에서 하나님과 결합하려는 것보다도 말이다.

하나님의 거처는 순수성과 통일성인데, 이것들은 무심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무심의 경지에 이른 마음에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는 법이다.

두 번째 이유는 사랑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 고통 당하게 하지만, 무심은 나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께만 민감하게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만 민감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혹은 하나님 안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경지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고통 당할 때, 그 고통을 야기시킨 피조물에 어느 정도 주의를 기울이지만 무심의 경지에 이른 사람은 피조물로부터 초탈하기 때문이다.

(2) 무심과 겸손

또한 에크하르트는 겸손보다 무심을 더 귀하게 여긴다. 무심 없이도 겸손은 있을 수 있지만 겸손 없이 무심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완

51) ME 1, 150-151.

전한 겸손은 자기 부정에 달려 있다. 겸손을 통해 인간은 피조물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게 되며, 그럼으로써 어떤 식으로든지 피조물들에게 관심을 갖지만 무심은 자기 자신 안에 머무르게 한다. 그 어떤 관심의 움직임도 ‘자기 스스로 있음’(being self-contained)이 도달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차원에까지 이를 수 없다.⁵²⁾

무심의 경지에 이른 사람은 사랑하지도 미워하지도, 어떤 것을 닮으려고도 닮지 않으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는 오직 하나이며 동일하게 존재하기를 열망한다. 왜냐하면 이러 저러한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아무 것도 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와 관련된 한 모든 것은 순수하게 있게 된다.⁵³⁾

(3) 무심과 자비

에크하르트는 무심을 자비보다 더 차원 높은 것으로 여긴다. 왜냐하면 자비는 동료의 결핍을 향해 밖으로 나아가는 것에 지나지 않는데 그럼으로써 마음은 어지럽혀지기 때문이다.

철학자 아비체나는 이렇게 말했다. “무심에 이른 마음의 경지는 매우 높기 때문에 그것이 보는 것은 참되며, 그것이 바라는 것은 성취되며, 그것이 명령하는 것은 이루어진다.” 진정으로 무심에 이를 때, 하나님은 그 마음 안으로 들어오시지 않을 수 없다. 결국 하나님 자신에 속한 모든 속성들을 갖게 된다.⁵⁴⁾

52) ME 1, 151.

53) ME 1, 152.

54) ME 1, 153.

3) 무심의 대상

순수한 무심의 대상은 무엇인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순수한 무심은 ‘텅 빈 없음’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높은 경지에서 당신의 의지를 작용시킨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마음속에서 똑같이 일하시지 않으며, 각 사람 속에서 당신이 발견하시는 준비성과 감수성에 따라 일하신다. 이것저것 잡다한 것을 포함하고 있는 어떤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지고한 활동을 방해하는 어떤 요소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마음이 하나님을 위해 준비되려면 ‘없음’, 곧 마음의 최대수용조건으로 비워져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없음’으로 축소된 무심에 이른 마음은 최적조건, 즉 최대의 감수성의 조건이 된다. 나의 마음이 무심에 이르러 이러 저러한 것에 기울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수준에서 당신의 의지를 행사하시는 데 자유로우시다.⁵⁵⁾ 사람이 피조물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않을수록, 창조주께서는 더욱 더 그를 찾아오시는 것이다.

무심에 이른 사람은 아무 것도 원하지 않으며, 빼앗기게 될 수도 있는 어떤 것을 도무지 소유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어떤 기도도 갖지 않는다.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과 일치되기 위해서만 기도할 뿐이다.⁵⁶⁾

영혼이 하나님을 인식하는데 시간과 공간만큼이나 방해하는 것도 없다. 그 이유는 시간과 공간은 부분들이지만 하나님은 하나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영혼이 하나님을 알려면 그것은 시간을 넘어서, 그리고 공간 바깥에서 하나님을 인식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술한

55) ME 1, 159.

56) ME 1, 160.

사물들 가운데 이러 저러한 사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하나이다. 이는 마치 색깔을 구별하기 위해 눈은 먼저 모든 색깔들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을 보려면 영혼은 실제로는 아무 것도 아닌 사물들과 공통분모를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모든 피조물들이 아무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영혼이 하나님을 알려면 자기 자신을 망각해야 하며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을 잊거나 잃어야 한다. 왜냐하면 자기-의식을 갖는 한 영혼은 하나님을 볼 수도 의식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을 갖지 않을 때,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다시 발견하게 된다.

사람이 만약 최상의 선과 영원한 선을 알기 원한다면 그 선이 분리되어 있는 곳이 아니라, 그 자체로 선인 곳에서 그것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참 존재를 알기 원한다면 그 자체가 존재인 곳에서 그것을 인식해야 하는데, 그 자체가 존재인 곳이란 바로 하나님 안이지 피조물 가운데가 아니다. 피조물 가운데서는 존재가 피조물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다.⁵⁷⁾

57) ME 1, 223-224.

2. 하나님을 얻는 길

하나님을 얻는 일은 어떻게 그리고 언제 이루어지는가? 에크하르트에 의하면 그것은 어떤 특정한 방법으로 꾸준히 관상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에 달려 있고 하나님을 향한 내적이며 지적인 전향에 달려 있다. 어떤 특정한 방법에 전념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적어도 어려운 일이다. 그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최선은 아니다. 에크하르트는 인간이 스스로 생각한 하나님을 소유해서도 안되며 그것에 스스로 만족해서도 안 된다고 한다. 그 관념이 우리의 마음에서 사라진다면 그것과 함께 하나님도 사라지실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바라는 것은 인간의 온갖 관념과 피조물 너머에 높이 계신 하나님의 실재인 것이다. 따라서 사람이 자진하여 그분에게서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실 것이다.⁵⁸⁾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사물들 속에서 당신을 사랑할 것에만 관심을 가지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은 대단히 탐욕스런 사람이다.⁵⁹⁾ 사람이 모든 것들을 소유하려 한다면 먼저 그것들을 모두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다.⁶⁰⁾ 또한 소유하되, 그것이 거저 주어진 것으로서가 아니라 빌린 것으로서 소유해야 한다. 다시 말해 몸이나 영혼, 정신이나 영혼의 기능들, 세상적 물건이나 영광, 친구나 친척이나 집이나 이외의 모든 것들에 대해 우리는 아무런 소유권도 없는 듯이 말이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적으로 우리의 소유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적게 가

58) ME 1, 40.

59) ME 1, 60.

60) ME 1, 83.

질수록 우리는 그분과 그분의 것을 더욱 많이 갖게 될 것이다. 만일 사람이 자신을 부정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 이외의 다른 어떤 것이 그럴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자신의 것이 될 것이다.⁶¹⁾

계속해서 에크하르트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의해 위로를 받고자 하는 우리 인간의 마음에 정곡을 찌르며 명쾌한 해결책을 준다.

위로를 얻기 위하여 외적인 사물들이나 유한하고 시간적인 피조물들을 열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낸다. 선한 사람은 자신의 불운이나 불행을 결코 불평하지 않는 법, 그는 오로지 자신이 전적으로 자각하고 있는 자신의 불평을 불평할 따름인 것이다.⁶²⁾

사람들은 그들이 받는 것을 통해서 보다는 없이 지내는 것을 통해서 더욱 진실한 하나님에 대한 확실성을 얻게 된다. 왜냐하면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것을 받게 되면 평안함과 기쁨에 대한 그의 이유는 그 선물이지만, 만일 그가 아무 것도 받지 않는다면, 그 자신의 행복의 이유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⁶³⁾

결국, 아무 것도 소유하지 않아서 깨끗한 텅 빈 ‘가난’만이 본성을 변화시키며⁶⁴⁾ 하나님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된다. 눈이 색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모든 색깔을 구별하게 되듯이 영혼의 기능들이 자유로워지고 순수해지면 질수록 그들의 범위는 더욱 넓어지며 그들은 지각 작용에 있어서 더욱 정확해질 것이라는 것이다.

61) ME 1, 84.

62) ME 1, 100.

63) ME 1, 104.

64) ME 1, 107.

3. 무심에 이르는 방법

그러면 이러한 무심에 어떻게 이를 수 있는 것인가? 에크하르트에 의하면 무심은 첫째, 인간의 마음에 피조물들과 관계된 덧없는 우연적 형상들 없이도 잘 지낼 수 있게 될 때, 자연질서에 대한 경험을 갖지 않을 때, 세상의 덧없는 일들로부터 정화될 때, 그리고 세상에 대해 죽음으로써 세상 적인 것에 대한 그 어떤 욕망도 갖지 않을 때 이루어진다.⁶⁵⁾

그 점에 대해 에크하르트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피조물들이 멈추는 곳에서 하나님은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피조물의 형상을 벗어버림으로써 하나님으로 하여금 여러분들 안에 계시게 하는 것이외의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가장 작은 피조물의 형상이라도 하나님의 크기만큼 큰 법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형상이 들어오는 한, 하나님과 그분의 신성은 비켜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형상이 나가는 즉시 하나님께서 들어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피조물의 형상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러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⁶⁶⁾

세상 적인 여러 가지 것들로 가득 채우는 것은 하나님을 비우는 것이지만, 그런 것들을 비우는 것은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꼭 새겨 두십시오.⁶⁷⁾

65) ME 1, 153.

66) LW I, 92. ME 2, 262 에서 재인용.

67) ME 1, 154.

이상의 글에서 알 수 있듯이 에크하르트는 우리들에게 사물을 보는 피조물적 방식을 단순히 다른 것으로 바꿀 것을 요청하지 않고 인간적 관점을 신적 관점으로 바꿀 것을 요청하고 있다. 우리는 사물들이나 그들의 형상들에서 우리 자신을 분리시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사물들을 보는 통상적인 방식에서조차 우리 자신을 분리시켜야 하는 것이다.⁶⁸⁾

에크하르트에 의하면 하나님의 활동은 목적이 없다. 하나님께 어떤 근원, 즉 하나님이 유래한 근원을 귀속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인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 이유가 되는 어떤 목적 인을 상정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부적절하다. 오히려 사물들의 끝이자 목표가 그분이다. 하나님께 대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어떤 불합리성을 귀속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재적 완전성 또는 자기 충족성이라는 사실을 말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의 목적이시라면, 그분의 목적은 당신 자신 안에 있는 당신 자신의 목적이다.⁶⁹⁾

우리가 신적이며 의롭다면 우리가 성취하려는 목적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의(義)로부터 태어난 의로운 사람은 자기 바깥에 어떤 근원이나 목적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가지며, 또 그 목적은 그 자신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다.”⁷⁰⁾

이렇게 ‘이유 없이’행하는 행위들이야말로 그 행위들을 마땅히 되어야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에크하르트는 ‘이유 없음’의 삶에 대해

68) 하나님의 관점으로 실재를 본다는 에크하르트의 사상에 대한 철저한 연구서로는 C. F. Kelley, *Meister Eckhart on Divine Knowledge* (New Haven, 1977)가 있다.

69) ME 2, 265.

70) LW II, 26. ME 2, 266 에서 재인용.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이러한 내적 근거로부터, 이유 없이 해야 합니다. 일을 하되 하나님이나 여러분들의 외적 행복을 위해서 한다면, 여러분들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부역이나 광에서보다는 내적 경건이나 헌신, 달콤한 위안이나 비밀상적인 현상 속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은 마치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다거나 그분을 의자 밑으로 던져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뒤에 남겨둔 채 그 길을 택하기 때문입니다.....

수 천년 동안 사람들은 사람이 왜 사냐고 물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답은 나는 내가 살기 위해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삶은 바로 자기 자신의 근거로부터 살아가며 자기 자신의 자아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삶은 이유 없이 사는 것이며, 그럼으로써 삶은 바로 자기 자신을 사는 것입니다.⁷¹⁾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이런 저런 이유 때문이 아니라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만일 하나님께서 지혜나 당신 자신을 제외한 그 밖의 당신이 주셔야 할 어떤 것을 그런 사람에게 주신다 하더라도 의로운 사람은 그것을 쳐다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즐거움으로 삼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무 것도 원하지 않고 아무 것도 추구하지 않으며 무엇인가를 행함에 있어 그 어떤 이유

71) DW II, 26. ME 2, 267 에서 재인용.

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인(動因)을 갖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아무런 동인 없이 행동하시듯 의로운 사람도 아무런 동인 없이 행동하는 것이다. 삶은 그 어떤 존재 이유도 필요로 하지 않고 삶 그 자체를 위해 하는 것이듯 의로운 사람은 자신이 행하는 행위에 대한 그 어떤 이유도 갖지 않는 것이다.”⁷²⁾

결국, 에크하르트는 ‘이유 없이’살며 이유 없이 행동하는 것과 우리들에게서 형상을 제거하는 것은 서로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이 둘은 모두 인간의 무성(無性)을 참 존재 또는 아들로 전환시킨다.⁷³⁾ 다시 말해서 아들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72) ME 2, 23.

73) ME 2, 267.

IV장. 영혼의 불꽃과 아들의 탄생

1. 의로운 사람

에크하르트에의 ‘아들의 탄생’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먼저 ‘의인’에 대한 그의 사상을 알아보자. 이 두 사상은 에크하르트에게 같은 것이다.⁷⁴⁾

에크하르트에게 의로운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로부터 모든 것을 똑같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즐거운 것이든 고통스러운 것이든, 그 어떤 것이든 하더라도 의로운 사람들은 더도 덜도 아니게, 다시 말해 하나를 다른 것과 똑같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인 것입니다.”⁷⁵⁾

에크하르트는 네 가지 근본 덕 - 지혜, 용기, 절제, 정의 - 중에 하나인 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성에 대한 보편 개념으로서의 의가 의로운 사람과 어떻게 관계되는가, 즉 “의로움”이 피조물 안에 어떻게 존재하는가에 관심을 갖고 있다. 우리는 두 가지 전제를 두어야 한다. 하나는 의와 의로운 사람의 관계에 대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에크하르트 특유의 ‘인 관뚝(in quantum)의 원리’이다.

의는 의로운 사람에 앞서 존재한다. 의가 의로운 사람 안에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의로운 사람이 의안에 존재한다는 것이 더 정확한 말이다.⁷⁶⁾ 그 점을 에크하르트가 말한 ‘선’과 ‘선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알아보자.

74) DW II, 258. ME 2, 241에서 재인용.

75) ME 1, 233.

선은 창조되지도 만들어지지도 탄생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선한 사람을 낳으며 탄생시킵니다. 그는 선의 어린이와 선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 안에서 선은 선 자신을 낳으며, 선 자신인 모든 것을 낳습니다.⁷⁷⁾

위의 인용에서의 선과 선한 사람의 관계는 의와 의로운 사람의 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

즉, 의로운 사람이 의롭게 행동함으로써 의를 생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하고 영원한 의와 합일됨으로써 피조물인 의로운 사람은 무에서 탈출하는 것이다. 의로운 사람이 의를 하나의 실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의가 의로운 사람을 실재적이게 하는 것이다.⁷⁸⁾

두 번째로 ‘인 관뚝’의 원리는 의로운 사람의 피조성과 하나님과의 동등성을 동시에 말할 수 있는 에크하르트 특유의 논리다.

에크하르트가 말하는 의와 의로운 사람과 하나님의 동등성은 의에 온전히 사로잡힌 의로운 사람과 의인 하나님과의 동등성을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이신 의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의라는 덕을 실천하는 사람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의는 의로운 사람의 속성으로 여겨질 수 있는 어떤 추상이 아니다. 의는 하나님 자신이다. 에크하르트는 이점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 “진짜 의로운 사람은 오로지 의(義)만을 자신의 아버지로 갖는다.” “하나님과 의는 완벽하게 하나다.”⁷⁹⁾

76) ME 1, 234.

77) LW V, 9. ME 1, 235에서 재인용.

78) ME 1, 235.

79) DW V, 12. ME 1, 237에서 재인용.

우리가 아들이 되는 일에 있어서의 ‘in quantum’요인은 에크하르트
의 설교 중 ‘하나님의 위로의 서’에 가장 명백하게 나타난다. “하나님의
아들들(sons) 이 더도 덜도 아니게 순전히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한
(in quantum), 아들(the Son)은 우리 안에서 태어나며,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로부터 흘러나온다.”⁸⁰⁾ 여기서 에크하르트는 ‘in quantum’ 원리로
우리와 아들의 하나임을 강조하는데, 아들과의 바로 이러한 하나임이 우
리에게 위로를 준다고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하나임에서 우리가 멀어지
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아들이 그만큼 덜 되
는 것이며 이러한 하나임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아들이 그만큼 더 되는 것이다.⁸¹⁾

그렇다면 사람은 어떻게 해서 피조물의 상태를 벗어나 진짜 의로
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에크하르트는 “의는 의를 사랑하는 사람을
자신의 소유로 하며, 그는 의의 포용을 받는다”라고 말한다. 그렇게 해서
그는 의가 된다.⁸²⁾ 의를 사랑하는 것이 피조물과의 신적인 합일을 가져온
다는 것이다.

피조물의 진정한 자유는 피조물이 하나님과의 동등성을 획득할 때,
성취된다. 의가 되는 일에 더욱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자유를 성취
하는 일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게 된다. 피조물들 자신은 노예이며 자유롭
지 못하기 때문이다.⁸³⁾

80) DW II, 258. ME 1, 241에서 재인용.

81) DW V, 41. ME 1, 242에서 재인용.

82) DW II, 257. ME 2, 238에서 재인용.

83) ME 2, 239.

2. 아들의 탄생

1) 탄생의 의의

영혼 속에서 일어나는 ‘아들의 탄생’이라는 표상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합일을 목표로 하는 에크하르트 사상의 핵심이다. ‘아들의 탄생’이라는 주제는 그리스도교 신학에서 새로운 주제가 아니다. 이 주제는 그리스도교부들에게서도 발견되는 주제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에크하르트는 독창적으로 새로운 차원의 의미를 부여한다. 그가 아들의 탄생을 중심 주제로 삼고 있는 그의 한 설교를 인용한다.⁸⁴⁾

아버지는 당신 자신과 동등한 당신의 아들을 영원 속에서 낳으십니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셨다(요한복음 1:1).” 말씀은 동일한 본성 속에서 아버지와 동일한 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아버지는 당신의 아들을 영혼 속에도 낳으셨습니다. 영혼은 그분과 함께 있었고, 그분은 영혼과 동등한 분이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영혼 안에 계시며, 아버지께서는 영원 속에서 그러시는 것처럼 당신의 아들을 영혼 속에 낳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 일을 좋든 싫든 하셔야만 합니다. 아버지는 당신의 아들을 쉽 없이 낳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나에게 낳으실 뿐만 아니라, 나를 당신 자신으로, 당신 자신을 나로, 그리고 나에게 당신의 존재와 본성을 낳으십니다.

84) ME 2, 239.

나는 가장 내밀한 원천으로부터, 성령 안에서 분출됩니다. 그곳에는 하나의 생명, 하나의 존재, 하나의 일이 있을 따름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나와 아들을 구별 없이 탄생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야말로 나의 진짜 아버지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분의 아들이며 그분께로부터 갖게된 모든 것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똑같은 아들이지 다른 아들이 아닙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하나의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형되며 변화될 것입니다.(고린도후서 3:18)...”

다른 것으로 변하는 어떤 것은 자신과 다른 그것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나는 그분(하나님)으로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당신의 존재를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로 내 안에 넣으시는 것입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거니와, 이것은 진실입니다! 그 어떤 구별도 없는 것입니다.⁸⁵⁾

이 설교를 통해서 아버지는 아들을 낳으셔야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아버지의 의지와 무관하게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 또한 내가 바로 그 동일한 아들이다. 나를 낳음으로써 그분은 당신 자신과 당신의 존재, 그리고 당신의 본성을 낳으신다. 그 일은 영원과 영혼 속에서 일어난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영혼이 그 분과 함께 있었고, 그 분은 영혼과 동등한 분이시며, 영혼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이다.

영혼 속에는 모든 것을 똑같이 감미롭게 여기는 하나의 기능이 있다. 가장 나쁜 것이나 가장 좋은 것이나 모두가 그 기능에 대해서는 매양

85) DW I, 109-111, ME 2, 239-240에서 재인용.

한가지다. 그러나 그 기능은 지금 여기에서 분리된 채 만물을 바라본다. ‘지금’은 시간을, ‘여기’는 공간을 의미한다. 지금 내가 서있는 이 곳에서 만일 내가 자아로부터 떠나는 동시에 완전히 순수해질 수 있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외아들을 내 영 속에 낳으실 것이며, 그렇다면 이러한 순수함 속에서 내 영도 그 보답으로 그 외아들을 하나님 안에 탄생시킬 것이다. 다시 말해, 만일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잘 준비되어 있다면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안에서 그러셨던 것처럼, 아니 그에 못지 않게 내 안에서도 활동하실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시는 것과 똑같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⁸⁶⁾

하나님은 원 창조자이시며, 낳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아버지이신 것이다. 영혼은 아들을 잉태한 동정녀 아내이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영원한 기쁨의 비밀이다. 영혼은 영원한 ‘지금’(‘Now’ of eternity)속에서 하나님만이 점유하시는 것이다. 창조는 그런 식으로 일어난다. 하나님은 지치지 않고 영혼을 사랑하는 분이시다.⁸⁷⁾

그렇다면 아들이 탄생함으로 인해 유익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에크하르트는 아들의 탄생을 주는 유익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호소한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탄생을 품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그것과 함께 모든 선과 위안, 모든 기쁨과 실재와 진리가 여러분들의 것이 될

86) ME 1, 228.

87) ME 1, 20.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탄생을 거부한다면 여러분들은 모든 선과 축복을 거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하나님의 탄생이 주어지면 여러분들 앞에 그 무엇이 놓여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은 더럽혀지지 않은 실재와 안정의 길로 인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탄생만이 축복을 가져다줍니다. 그 밖의 모든 것은 부패합니다.⁸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그분 자신의 소유인 어둠 속에서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동일한 아버지의 자녀인 우리들 또한 그곳에서 태어났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역시 특권을 주셨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따르기 위해 자기 자신이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그밖에 모든 외적인 일들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에크하르트는 그 말씀을 “피조물의 외면성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러한 신적 탄생을 경험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다”라는 의미로 해석한다. 자신을 자아로부터, 그리고 모든 외면 성으로부터 분리시킴으로써 진리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 일을 올바르게 해내는 사람은 그 어떤 종류의 행동과 그 밖의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을 것이다.⁸⁹⁾

우리가 아들의 탄생이 일어났다는 것을 아는 것은 가능한 일인가? 또한 가능하다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주위에 있는 지상의 모든 것들과 함께 거룩한 탄생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 거룩한 탄생을 향해 돌아서게 된다. 이전에 방해가 되었던 것들은 이제 도움으로 변한다. 우리의 얼굴은 정면으로 그 탄생을 향해 돌

88) ME 1, 180.

89) ME 1, 177.

아셨기 때문에 그 무엇을 보며 그 무엇을 듣든지 그것들로부터 오직 영원한 탄생만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표상하며, 이세상의 모든 것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보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잠시 태양을 보고 나서 다른 사물을 볼 때 그 곳에는 늘 태양의 상이 맺히는 것과도 같다고 한다.

반대로 우리가 그 어떤 곳에서도 그리고 그 어떤 것 안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다면, 이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영원한 탄생을 일어나지 않는 표지인 것이다.⁹⁰⁾

2) 탄생의 장소와 시간

에크하르트는 ‘아들의 탄생을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탄생을 나에게 무슨 도움을 줄 수 있는가? 모든 것은 내 안에서의 새로운 탄생을 달려 있다.’⁹¹⁾고 말한다.

그렇다면 아들이 탄생하는 장소는 어디인가? 하나님은 영혼 안의 어느 곳에서 말씀을 하시는가? 영혼의 어떤 부분이 이러한 탄생작용에 민감한 것일까? 탄생은 영혼 안에서 일어난다. 엄밀히 말해서 그것은 영원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떠한 차이도 없다. 그것은 언제 어디서나 동일한 탄생이며, 영혼의 본질 곧 영혼의 불꽃에서 일어나는 것이다.⁹²⁾ 여기서 영혼과 다른 피조물들과의 차이점이 드러난다.

90) ME 1, 210.

91) ME 1, 166.

92) ME 1, 179.

사물들 안에 계신 하나님은 활동이며 실재이며 힘인 반면에, 영혼 속에서의 하나님은 낡은 분이다. 피조물들은 단지 하나님의 발자국에 불과하지만 영혼은 그 본성 상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음 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탄생이 일어나는 영혼은 생명의 순수성과 고귀함을 가져야 하며 동시에 단순성과 자족성을 유지해야 한다. 영혼은 오감을 통해 경험되는 사물의 다양성 속으로 분산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영혼은 자족성과 단순성 그리고 무엇보다 최상의 순수성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영혼의 거처이며, 영혼은 순수하지 못한 그 밖의 모든 것을 경멸하기 때문이다.⁹³⁾

존재(Being) 안에는 그 어떤 행위도 없다. 따라서 영혼의 본질 속에는 아무 것도 없다. 영혼으로 하여금 활동하게 하는 영혼의 기능들은 영혼의 핵에 그 근원을 두고 있다. 바로 그 핵 속에는 중심의 침묵과 순수한 평화가 있으며, 천상적 탄생의 거처와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된다. 영혼의 핵은 그 본성 상 매개되지 않는 신적 존재 이외에는 그 어떤 것에도 미감하지 않는다. 여기서 하나님은 자신의 일부가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가지고 영혼 속으로 들어가신다. 하나님은 영혼의 핵을 통해 영혼 속으로 들어가시며, 하나님 자신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그 핵을 건드릴 수 가 없다. 어떠한 피조물도 영혼 속으로 들어갈 수 없다.⁹⁴⁾

그렇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어떻게 영혼 속에서 탄생시키는가? 피조물처럼 관념들과 상들을 가지고 그러시는가? 에크하르트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하나님이 들어오시려면 피조물은 밖으로 나가야만 한다.

93) ME 1, 167.

94) ME 1, 168-169.

빛과 어두움이 함께 설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피조물이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⁹⁵⁾ 하나님은 영원 속에서 당신의 아들을 탄생시키듯이 영혼 속에서 아들을 탄생시키신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하나님은 신적 본성의 참된 통일성을 통해 당신의 아들을 낳으신다. 바로 이것이 그 방법이다. 하나님은 영혼의 핵 안에 당신의 아들을 낳으시며, 그것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다른 방법은 없다. 만약 어떤 상(관념)이 개입되면 진정한 통일성이란 기대할 수 없다. 인간의 모든 은총은 그런 통일성 속에 있는 것이다.⁹⁶⁾

그렇다면 탄생이 일어나는 때는 언제인가? 아들의 탄생은 장소에 얽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간 속에서 일어나지도 않는다. 시간에서 독립한 ‘영원한 지금’⁹⁷⁾ 속에서! 에크하르트는 한 설교에서 ‘영원한 지금’을 ‘하나님의 날’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설명한다.

“영혼이 불변하는 지금 속에서 영원이라는 날 안에서 있으며, 아버지께서 현재적 지금에 당신의 외아들을 낳으시는 곳, 그리고 영혼이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곳,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날입니다. 탄생이 일어나는 횡수만큼 영혼은 외아들을 낳는 것입니다.”⁹⁸⁾

95) ME 1, 181.

96) ME 1, 170-171.

97) 에크하르트에 의하면 하나님의 창조는 언제나 현재적 사건이며, 또한 영원한 현재적 사건이다. 하나님은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이 태초는 ‘영원한 현재’를 의미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영원히) 현재뿐으로, 과거, 현재, 미래의 구별은 인간이나 유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하나님께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님은 지금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현재 속에서, 그의 말씀인 아들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만물을 창조하신다. (Breakthrough, 65, 류기중, 『기독교 영성』 125에서 재인용)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을 나에게 낳으시는 것처럼 나는 다시 그 외아들을 아버지께 낳습니다.”⁹⁹⁾

“뜻(의지)이 일치되어 그냥 하나가 될 때 하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외아들을 당신 자신과 나에게 낳으십니다. 왜 당신 자신과 나에게 동시에 낳으시는 것입니까? 거기서(영혼 속에서) 나는 그분과 하나이기 때문입니다.”¹⁰⁰⁾

하나님의 날은 낮과 밤을 모두 포함하는 완전한 날이다. 그것은 참된 지금으로서 영혼에게는 영원한 날이며, 이 날 아버지는 자신의 외아들을 탄생시키시며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는 것이다. 동정녀의 아들들은 평범한 여인들의 자녀들보다 많다. 왜냐하면 그들은 시간을 넘어 영원 속에서 탄생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혼이 영원 속에서 낳는 자녀들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그들 모두는 여전히 오직 하나의 아들일 뿐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두 시간을 넘어 영원의 날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¹⁰¹⁾

3) 탄생을 위한 준비

아들이 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떤 윤리적인 행동이나 금욕적인 행동을 해야 하는가?

에크하르트는 모든 윤리적 가치는 내적 작용으로부터 생기는 것이

98) DW I, 166. ME 2, 246에서 재인용.

99) DW I, 383. ME 2, 246에서 재인용.

100) DW II, 11. ME 2, 246에서 재인용.

101) ME 1, 344.

며, 외적 일 즉 육체적으로 하는 행동은 윤리적 가치에 아무 것도 첨가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하나님은 외적 행위를 형식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외적 행위는 방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외적 행위는 형상적으로 선하거나 거룩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분이나 그것을 일으키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다. 오직 내적 행위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다.¹⁰²⁾

에크하르트는 금식이니 철야니 하는 금욕주의적 경건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외적 행위들이 영적 진보를 위해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한 행위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경건이 인간이 하나님과 하는 매매라고 생각하게 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¹⁰³⁾

사람들은 그런 행위들이 스스로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라도 되는 듯이 생각하면서 그런 행위들에 얽매일 것이다. 이때 그런 행위들은 수단이기보다는 목적이 되기 쉽다.

이와는 달리 에크하르트는 종교적 행위의 목적이 인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는 데 있다고 본다. 이것에 대해 겐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기도를 성서적인 뒷받침으로 설명한다.

“자신의 뜻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묵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은 그 사람이 원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 것도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이 누구이거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의 뜻을 보답으로 주십니다. 주시되 너무 완전하고 실제적으로 주시기 때문에 하나

102) LW I, 634-636. ME 2, 256 에서 재인용.

103) DW I, 6. ME 2, 257에서 재인용.

님의 뜻은 인간의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것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의 것도 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¹⁰⁴⁾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또한 영혼의 모든 기능이 행위와 관념화(형상화, ideation)로부터 물러날 때 들려온다. 영혼의 기능들로부터 멀리 물러나면 물러날수록, 그리고 자신이 이제까지 받아들인 사물들과 상(관념)들을 잊으면 잊을수록 이 말씀을 가까이 들을 수 있으며, 그 말씀에 더욱 민감해질 수 있을 것이다.¹⁰⁵⁾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영혼에 주시려 할 때 영혼은 침묵과 평화 가운데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고요와 침묵을 통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하는 다른 훌륭한 길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만 말하자면 비 자아의식에서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 것도 의식하고 있지 않을 때, 그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며 명백히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이다.¹⁰⁶⁾ 이때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며 자신으로부터 분리된, 단순히 하나의 관념이 아닌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것이다.

관념들로부터 자유로워지면 질수록 하나님의 내적 활동에 민감해질 수 있다. 즉, 내면으로 향하고 자기 자신을 잊는 것에 정비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내적 활동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것이다.¹⁰⁷⁾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의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에 의해서 영혼의 기능들이 하나님 자신을 향하도록 하는 것이다. 영혼이 자신의

104) DW II, 8. ME 2, 258에서 재인용.

105) ME 1, 172.

106) ME 1, 186.

107) ME 1, 173.

기능들 가운데 흩어져 있으면서 외면적인 것들 곧, 눈의 봄, 귀의 들음, 혀의 맛봄 등과 같은 기능들에 분산되어 있다면 영혼의 내적 행위는 점점 더 약해지게 된다. 그러므로 영혼의 내적 활동이 더욱 효과적이려면 영혼은 자신의 기능들을 그들의 분산됨의 상태에서 하나의 내적 노력으로 다시 불러모아야 한다.¹⁰⁸⁾

영혼 속에서의 거룩한 탄생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안에 자신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 순수하며, 자유로우며, 방해받지 않는 영혼, 곧 하나님 이외의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기다리지 않는 영혼을 가져야만 한다.

4) 탄생과 삼위일체

에크하르트에 의하면 아들의 탄생은 삼위일체의 작용과 밀접하게 얽혀 있다. 에크하르트는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 것과 성령이 발현되는 것을 인간의 영혼 속에서 아들이 탄생되는 것과 똑같은 것으로 여긴다.¹⁰⁹⁾

아들과 다른 무엇인가가 우리 안에서 태어난다면 성령도 은총도 역사하지 않는다. 여기서 아들은 성령의 근원이다. 아들이 없다면 성령도 없게 될 것이다. 성령은 아들 없이 그 꽃을 피울 수 없다.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당신의 아들을 주실 때, 그분은 본질적으로나 본성적으로 소유하고 계신 모든 것을 주시며, 선물을 주시는 것 안에서 성령의 꽃봉오리

108) ME 1, 183.

109) ME 2, 242.

는 피어나는 것이다.¹¹⁰⁾

영적 탄생은 아들이 마리아로부터 육체적으로 탄생한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우리는 “우리가 아버지께서 영원히 낳으신 유일한 아들이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나는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흘러나온 존재다. “그렇지만 아직 하나님 안에 남아 있다”¹¹¹⁾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자녀들)이 되는 특권을 갖고 있다. 인간은 그렇게 살아 “외아들과 하나이어야 하며, 그 자신이 외아들이어야 한다. 외아들과 영혼 사이에는 아무 차이도 없는 것이다.”¹¹²⁾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 자신이신 것같이 우리도 하나님과 아무 차이나 구별도 없이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 동일한 실체, 동일한 본성이 되는 것이다.¹¹³⁾ 이렇게 에크하르트는 하나님의 아들과 영혼의 하나임(동일성)을 강조한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낳는 일에 있어서도 아버지와 합일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을 나에게 낳으실 지라도 내가 그분(아들)을 낳지 못한다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완전한 영혼 속에서 낳으시며 영혼이 그 아들을 자신의 여러 가지 일들 속에 낳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인 것입니다.”¹¹⁴⁾

아버지와 이렇게 하나됨으로써 나 역시 성령을 발현시키는 것이다.

110) ME 1, 256.

111) DW I, 376. ME 2, 243에서 재인용.

112) DW I, 169. ME 2, 243에서 재인용.

113) DW III, 320. ME 2, 243에서 재인용.

114) DW III, 301. ME 2, 244 에서 재인용.

만일 영혼이 낳기도 하며 태어나는(낳아지는) 것이기도 한다면, 그것은 태어난 아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합일로부터 발현되는 성령과 동일시될 수 있다.

“아버지의 본질은 아들을 낳으시는 것이며 아들의 본질은 내가 그분 안에서 태어나 그분처럼 되는 것이다. 성령의 본질은 내가 그분 안에서 소멸되어 그분 안에서 완전히 녹아 없어지는 것이며, 완전하게 사랑이 되는 것이다.”¹¹⁵⁾

3. 아들이 탄생하는 과정

아들이 탄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아들이 탄생하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자. 이에 대해 에크하르트¹¹⁵⁾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이외에는 다른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즉, 우리가 하나이신 그 분께 온전히 들어가서 그 ‘하나’이외에는 그 무엇도 없어질 때 가능하다고 한다.

하나님이신 진리 안에서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는 다른 어떤 것을 바라다거나, 하나님 이외의 어떤 것을 기대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그 무엇이든지 그것들은 여러분의 것도 하나님의 것도 아닙니다. 진정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은 여러분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

115) DW II, 376. ME 2, 244 에서 재인용.

려하는 목표입니다. 내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내 아버지이시며, 나는 그 분께 복종해야 합니다. 본질상 두 분의 아버지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확신 해야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한분)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 하나이외의 모든 것이 사라질 때, 때가 차는 것이며 하나님의 탄생이 일어납니다.¹¹⁶⁾

이렇듯이 아들의 탄생은 개체로서의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를 이룰 때, 가능한 일이다.

‘일자(一者)’가 되는 보다 구체적인 방법과 그 유익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자. 에크하르트에 의하면 자기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복종시킴으로써 하나님을 사로잡고 그분과 하나로 묶이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원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 것도 하실 수 없게끔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에게서 자신의 뜻을 성취할 수 있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것(뜻)을 조건 없이 넘치도록 주실 것이며,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뜻(의지)은 우리 자신의 인간적인 뜻과 일치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으며 그 하나됨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당신 자신이 자신인 곳에서 그러시는 것처럼 당신의 영원한 아들을 우리 안에 낳으실 것이다.¹¹⁷⁾

또한 하나님께서는 나를 당신의 아들로써 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으로서 낳으시는 동시에 자신의 본성 곧 하나님 자신의 존재 안에서 나를 낳으시면서 나 자신으로 당신 자신을 탄생시키신다. 가장 내부의 근원에 있어서 나는 성령으로부터 생겨나며 여기에는 하나의 생명, 하나의 존재,

116) ME 1, 256.

117) ME 1, 291-292.

하나의 행위만이 있을 뿐이다.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낳으시듯 나를 낳으신다. 여기에는 구별이 없다.¹¹⁸⁾

아버지께서는 쉬지 않고 아들을 낳으신다. 일단 아들이 태어나면 그는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아버지에게서 아무 것도 취하지 않는다. 오직 태어나고 있는 순간에만 아들은 무엇인가를 아버지에게서 취하는 것이다.¹¹⁹⁾ 그런데 여기서 아들이 왜 아버지에게서 아무 것도 취하지 않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 그 점에 대해 에크하르트는 이렇게 설명한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를 종으로 부르지 않고 친구로 불렀다.”고 말씀하셨다.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의 종이며 주는 사람은 주인이다.

요즘 내가 줄곧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거나 바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나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만일 내가 하나님에게서 무엇인가를 취할 수 있다면 이때 나는 그분의 종이 되며 하나님은 그 주는 행위를 통해 주인이 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영원한 생명 안에서 사정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¹²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함에 있어서 자기들은 여기 있고 하나님은 저기 서 계시다는 식으로 상상하기도 하지만 에크하르트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과 나 그리고 우리는 하나이다. 하나님을 인식함으로써 나는 그분을 내 자신에게로 취한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118) ME 1, 300.

119) ME 1, 301.

120) ME 1, 301.

나는 그분에게 들어간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하나님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존재하고 계신 그대로의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성 바울로의 말씀¹²¹⁾을 예를 들어 설명한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나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에 항상 나와 동일하시다는 것이 우리의 지식이 된다는 것이다.¹²²⁾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을 자신 안에 탄생시킬 때 자신은 바로 그 아들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 우리가 아들들이라면 진정 우리야말로 참된 상속자인 것이다. 이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아버지’란 말이 순결한 탄생과 아들들의 소유를 함축하고 있다는 사실도 매우 잘 깨달을 수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아들 속에 있으며 바로 아들인 것이다.¹²³⁾

그렇다면 아들이 한 번 태어나면 그것으로 족하는가? 에크하르트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모든 노력들은 당신 자신을 재산출하는 (reproducing) 것을 지향하며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모든 피조물들에게 동등하게 주신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것처럼 나도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자연의 목표이다. 모든 사물은 자기 자신의 모형(replica)으로 자기 자신의 뒤를 잇게 하기 위해 애쓴다.¹²⁴⁾ 그렇기 때문에 아들의 탄생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예수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도 하나님(아들)의 계속적인 탄생을 위해서라고 설명한다.

121) 고후 3:18, 고전 13:12, 요일 3:2.

122) ME 1, 302.

123) ME 1, 308.

124) ME 1, 313.

“하나님은 왜 인간이 되셨는가? 내가 하나님으로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이다. 내가 하나님과 똑같이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인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죽으심으로 나도 역시 온 세상과 피조물에 대해 죽게 하셨다.”¹²⁵⁾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한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에크하르트에 의하면 아버지는 탄생시키시는 일 이외에 아무 것도 하실 수 없으며, 아들은 태어나는 일 이외에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외아들(독생자) 안에서 당신의 소유와 당신의 본성 모두를, 자연의 모든 기반을 즉시 낳으신다. 그것이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들었던 것이며 그것이 우리들에게 그가 계시한 것이다. 즉, 우리는 동일한 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 말이다. 아들이 소유한 것 즉, 그의 존재와 본성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의미에서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이다.¹²⁶⁾

모든 인간의 종교적 탐구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신적이며 인간적인 사건의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에크하르트는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하나님이 영혼 속에 태어나시며 영혼이 하나님 안에 태어나는 것이 그 목적인 것이다.” 그에 의하면 이것이야말로 성서 전체의 의미이며, 창조의 목적인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에 대한 응답은 인간이 하나님 되는 것이다.¹²⁷⁾

그렇다면 하나님과 인간은 실체적으로 동일한가? 에크하르트에게

125) ME 1, 318.

126) ME 1, 319.

127) DW II, 84. ME 2, 248 에서 재인용.

있어서 아들의 탄생은 창조행위가 아니라, 발생(generation) 혹은 변형(transformation) 행위이다. 변하고 있는 대상의 우연적 요소들에만 영향을 미치는 단순한 ‘변화(alteratio)’에 비해 ‘발생(generatio)’은 실체 또는 실체적 형상에 영향을 미친다.¹²⁸⁾ 즉, “발생”을 통해서 단지 이미 존재하는 어떤 것 안에서 일어나는 수정이 아니라 새로운 종류의 존재가 생겨나는 것이다.

스콜라 철학에서는 실체적 변화에 대한 두 가지 예가 종종 사용되곤 했는데, 음식을 먹는 사람의 실체로 변하는 음식이 그 하나이며, 불의 존재 또는 불의 실체를 취하는 타는 나무가 다른 하나이다. 이때 음식과 나무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아니며 각각 동물적 유기체와 하나가 되든지 불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유기체와 불은 각각, 먹히고 태워짐으로써 그 자체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음식이나 나무와는 전적으로 다른 존재들이다. 이러한 예는 바로 에크하르트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갈 2:20)”는 바울로의 말로 설명하고자 했던 것이다.¹²⁹⁾

아들의 탄생과 관련하여 하나님은 내 영혼 속에 아들을 낳으시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탄생의 필연성을 주장하는데 이러한 주장은 전통적인 그리스도교 사상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교 사상가들은 이 세계가 일종의 필연에 의해 신적 존재로부터 흘러나온 것이라는 신플라톤주의적 유출설¹³⁰⁾에 대항하여 창조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자

128) LW III, 122. ME 2, 250 에서 재인용.

129) ME 2, 250.

130) 유출설은 모든 파생적인 것들 곧 2차적인 것들은 보다 1차적인 것에서 흘러나온다고 주장한다. 제 1원인의 명확한 의지를 제거한다는 점에서 창조론과 구별된다. 만물은 자연법칙에 따라서, 의식적 의지작용 없이 유출된다.

신플라톤주의 체계에서는 최고의 원자(一者)가 아무런 의식적 행위없이 그 자체의 본성의 법칙에 따라서 넘쳐흐른다. 그러나 일자의 충일성에는

유를 확보하기 위해 무진 애를 써왔기 때문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아들을 영혼 속에 낳으시는 일이 하나님의 내재적 활동의 일부라면 그 탄생은 내재적 신적 본성을 지배하는 “규칙들”에 지배될 것이다.¹³¹⁾ 에크하르트에 의해 함축된 탄생사건의 필연성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필연성이지 하나님의 자유라는 본성을 제한하는 의미에서의 필연성은 아닌 것이다. 즉, 자발적 행동의 제한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역동성과 완전성으로부터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활동과 관계된 것이다.¹³²⁾

변화가 없다. 이 과정은 시간적으로 끝이 없다. 이 과정은 보다 완전한 것에서 보다 불완전 상태로 진행된다. 그리고 형용불가의 통일성이 모든 복수성의 원천이다. 누스(Nous: 정신, 지성)는 이 과정의 첫 단계이며 사고를 한다. 그리고 이에서 영혼과 로고스(logos: 말, 이성)가 유출된다. 이 과정은 계속되어 최하의 단계에 이르면 무본질의 질료(물질)가 된다. 『기독교백과사전』 (서울: 기독교문사, 1980).

131) ME 2, 246.

132) ME 2, 247.

V 장. 영혼의 불꽃과 합일

1. 합일

에크하르트가 주로 관심을 가진 것은 ‘인간의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과 창조 세계를 올바르게 알며, 또한 하나님께로 상승하여 그와 합일의 경지에 이를 수 있을까?’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하나님과 인간의 합일의 사건은 따로 떨어진 별개의 개체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다. 에크하르트에 의하면 사람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왔으며 하나님 안에 그 최초의 기원을 두고 있다. 즉, 모든 것들이 최초로 하나님에게서 방출된 것이며 그것들은 모두 동일하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존재들은 동등하며 하나님 자신인 것이다.¹³³⁾

이러한 유사성과 동일성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전체 본성과 존재를 부어 넣으시는 기쁨을 누리신다. 왜냐하면 동일성을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며 언제나 이 기쁨 안에 자신의 본성 전체를 부어 넣으시기 때문이다. 또한 그분 자신이 동일성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¹³⁴⁾ 이러한 동일성을 찾으면서 하나님과 인간은 다시 합일을 이룬다. 그럼으로써 따로 떨어진 별개의 존재가 아니었음을, 원래 하나의 존재였음을 알게 된다. 동일성을 찾는 접촉점은 결코 인간을 벗어나 멀리 있지 않다. 그것은 세

133) ME 1, 332.

134) ME 1, 333.

상으로부터 결코 받을 수 없다. 그것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사람에게 있는 ‘영혼의 불꽃’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렇듯이 인간과 하나님의 합일의 문제는 ‘영혼의 불꽃’을 통해서 풀 수 있다. 또한 ‘영혼의 불꽃’의 최종 목적이 인간과 하나님의 ‘영원한 합일’이기도 하다.

하나님이 더 이상 인간 밖에 있지 않고 온전히 내면으로 스며들 때, 영혼의 불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어떠한 매개도 없이 하나님을 소유한다. 이러한 영혼의 정수와 하나님의 중심이 하나가 된다.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에게 알려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는 것은 그에게 보여지는 것이다”¹³⁵⁾

에크하르트는 하나님과 영혼 사이의 합일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만일 하나님과 영혼 사이에 아무 것도 없다면 영혼은 즉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어떤 매개도 사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어떤 간섭(매개)에 의해서도 고통받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영혼의 모든 껍질이 벗겨지고 또한 하나님의 모든 껍질이 벗겨질 수 있다면 하나님은 자신을 남김없이 직접 영혼에게 주실 것입니다.”¹³⁶⁾

135) Suzuki, D. T. *Mysticism: Christian and Buddhist*. (New York: Harper & Brothers Publishers, 1957) 강영계 역, 『에크하르트와 선』 (서울: 주류. 일년, 1982), 180.

136) ME 1, 277.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합일을 이룬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짧은 한 순간 동안만이라도 영혼의 능력 속에서 당신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신다면, 그 사람은 모든 고통과 가난을 그 기쁨에 비해 매우 하찮은 것으로 여기게 될 것이다. 그 순간의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늘 나라를 전혀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가 겪은 모든 고통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받았다고 느끼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영혼의 그러한 능력 속에 곧 그 같은 찰나 속에 하나님 자신이 계시기 때문이다. 이러한 능력 속에서 만일 영혼이 항상 하나님과 합일된다면 사람은 결코 늙지 않을 것이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을 만드신 그 찰나 그리고 그 안에서 마지막 인간이 사라질 그 찰나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말하고 있는 그 찰나만이 있을 따름이다.

하나님의 빛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지나간 시간도 다가올 시간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의 영원만을 의식한다. 사실 그는 모든 기적들로부터 벗어나 있다. 왜냐하면 만물이 자신 안에 본질적으로 함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미래 사건으로부터도 우연으로부터도 새로운 아무 것도 얻지 못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찰나 곧 “새로운 옷입은 푸르름”속에서 충실하게 살아가기 때문이다.¹³⁷⁾

137) ME 1, 339.

2. 가난

에크하르트¹³⁸⁾는 하나님과 인간의 합일을 ‘마음의 가난’이라는 주제로 설명한다. ‘가난’은 ‘합일’에 대한 또 다른 이름인 것이다. 이것은 마태복음 5장 3절을 본문으로 한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¹³⁸⁾라는 제목의 설교에 잘 나와 있다. 이 설교에서 에크하르트는 먼저 외적 가난과 내적 가난을 구별하면서 그리스도 자신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실천하신 외적 가난도 중요하지만, 내적 가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주님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가난은 바로 내적 가난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에크하르트가 말하는 내적 가난이란 무엇인가? 에크하르트는 가난한 사람의 종류를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한다. 즉, 아무 것도 원하지 않는 사람, 아무 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 아무 것도 갖지 못하는 사람이다.

첫째, 아무 것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전통적으로는 마음의 가난을 사람이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는 것으로 이해해왔지만, 에크하르트는 그것을 참된 이해로 보지 않는다.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하는 의지가 남아 있는 한 그것은 가난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비운 채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에크하르트의 말을 직접 들어보자.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의 의지를 계속 갖고 있으면서 그것이 자신의

138) ME 1, 364-372.

의지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의 의지를 성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한 그는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런 종류의 가난을 소유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한 의지를 갖고 있는 바 그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지를 만족시킬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가 진정으로 가난해지기를 원한다면 그는 자신이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 때처럼 자신의 창조된 의지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을 갈망하는 한, 실제로 여러분들은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무 것도 바라지 않고 아무 것도 깨닫지 못하며, 아무 것도 원하지 않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¹³⁹⁾

여기서 에크하르트는 우리로 하여금 제 1의 근원으로 돌아가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거기서 나는 아무런 하나님도 가지지 않으며 단지 나 자신이 된다. 나는 그 어떤 것도 원하지도 바라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순수한 존재요 또한 신적인 진리에 의해 나 자신을 아는 자이기 때문이다. 그 때 나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나 자신을 원한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이나 다른 어떤 것의 구속을 받지 않고 존재하게 된다.¹⁴⁰⁾

둘째, 아무 것도 알지 못하는 가난이다.

이런 가난을 성취하려는 사람은 자신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을 때 가지고 있었던 것을 소유한 듯이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도 진리도 하나님도 아니다. 즉 그는 모든 지식에서 떠나 텅 빈 상태가 되어 하나님과 진리와 자신에 대한 그 어떤 지식도 소유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139) ME 1, 365-366.

140) ME 1, 366.

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나 진리에 대한 지식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나 진리에 대한 ‘피조물의’ 지식이다. 바로 이러한 ‘피조적’ 지식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난에 이르는 길이다.

에크하르트¹⁴¹⁾는 아무 것도 모르는 가난을 설명하면서 진정한 행복은 지식이나 사랑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 속의 어떤 것, 영혼의 불꽃에 있다고 하면서, 이것은 ‘이전’도 ‘이후’도 갖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활동하셨다는 인식을 갖지 않는다고 말한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처럼 자기 자신을 향유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 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가난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지식에 가난해진 사람이며, 하나님이나 피조물들이나 자기 자신에 대해 아무 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인 것이다.¹⁴¹⁾

셋째, 아무 것도 갖지 않는 가난이다.

이것은 가장 내면적이고 실제적인 가난이다.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 중 그 어떤 것도 소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다. 에크하르트의 설명을 들어보자.

만일 어떤 사람이 사물들과 피조물들과 자기 자신과 하나님을 비웠 으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사람 안에서 활동할 장소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런 장소가 존재하는 한, 그 사람은 가장 본질적인 가난에 있어서 결코 가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일 할 수 있는 장소를 사람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 보존해 두는 것을 바라 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마음의 가난이란 사람이 하

141) ME 1. 368.

나님과 하나님의 온갖 일들을 비울 것을 요청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하나님께서 영혼 속에서 활동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스스로 장소가 되셔야만 하며 그 안에서 활동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것을하기를 좋아하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이만큼 가난하다는 것을 일단 발견하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고유의 행동의 책임을 떠맡으실 것이며 스스로 활동의 바탕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 안에서 활동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과거의 자신이었고, 현재의 자신이며, 앞으로도 늘 자신 일 영원한 존재를 다시 획득하게 되는 것은 바로 여기, 바로 이러한 가난 속에서인 것입니다.

사람은 아주 가난해져야 하며, 그럼으로써 그 자신 하나님이 활동하실 장소이어서도, 또 그런 장소를 가져서도 안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이 내게서 하나님을 제거해 버리실 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¹⁴²⁾

이러한 가난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활동하실 장소를 마련하기 위한 가난이다. 이런 식으로 가난해져야 하는 이 목적 역시 내가 태어나기 이전의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며, ‘실질존재’를 획득하는 것이며, 하나님과의 동일성을 획득함으로써 장소의 이중성을 전제로 한 존재의 이중성을 극복하여 하나님과의 합일을 꾀하는 데 있다.

142) ME 1. 369-370.

3. 뚫고 나감

영혼이 진정으로 정화된다면, 즉 하나님과의 합일의 단계를 넘어간다면 이제 하나님은 어둠으로 사라지고 신성만 남게 된다. 동시에 인간도 어둠으로 사라지고 신성만 남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에크하르트는 내가 없이는 하나님도 없다고 역설적으로 말한다.

“나는 나의 영원한 존재와 나의 시간적인 존재 양자에 대한 나 자신의 제 1원인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 내가 태어났으며, 나의 영원한 탄생으로 인하여 나는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영원히 있었고, 지금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있으리라는 것은 영원한 탄생의 본성에 속합니다. 시간적인 피조물로서의 나는 죽어서 무로 돌아갑니다. 내가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그 어떤 하나님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¹⁴³⁾

에크하르트는 가난에 대한 설교를 ‘뚫고 나감(breaking-through)’이라는 말로 결론짓는다.

마음의 가난을 통해 피조물들은 신성과의 일치로 복귀한다. 가난한 사람은 모든 존재 너머에 있는 신적 존재를 향하여 자신의 피조물의 특징을 ‘뚫고 나아가는(break through)’것이다. 이러한 ‘뚫고 나감’을 통해 우리는 모든 피조물들을 초월한다. 우리는 더 이상 피조물도 아니며, 그렇다고 해서 피조물의 시작인 하나님도 아니다. “나는 지금 또 영원히 과거의 나이며, 미래에 될 내가 된다.”¹⁴⁴⁾

143) ME 1, 371.

144) DW II, 504.

‘뚫고 나감’을 통해 하나님과 피조물은 하나가 되며, 피조물의 신성화는 완성되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라는 설교에 있는 그의 구체적인 설명을 직접 들어보자.

한 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뚫고 나가는 것은 내가 흘러나오는 것보다 고귀한 일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흘러나왔을 때 피조물들은 “그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를 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은 나 역시 하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유롭게 될 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일과 심지어는 그분 자신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때, 뚫고 나가면서 나는 모든 종류의 피조물 위로 솟아오르게 되며 나는 하나님도 피조물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때 나는 과거에 나였던 것, 현재 나인 것, 앞으로 영원히 나일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나는 천사들 위로 나를 일으킬 추진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추진력과 함께 나는 하나님이나 그분의 소유인 모든 것, 또는 그 어떤 신적 활동에 대해서도 결코 만족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부를 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만유를 움직이는 부동의 동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 하나의 하나님은 여기서, 곧 사람 안에서 아무런 “장소”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가난에 의해 그 사람은 항상 자신의 것이었으며, 영원히 자신의 것으로 남아 있을 존재를 성취하기 때문입니다. 역시 여기서 하나님은 영혼과 동일하게 되며, 그런 것이야말로 발견될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가난인 것입니다.¹⁴⁵⁾

145) ME 1. 371-372.

결국, 영혼의 불꽃을 통한 인간과 하나님의 일치는 모든 구별을 사라지게 된다. 그 때야 비로소 하나님과 영혼은 온전히 동일해 진다. 이제 인간과 하나님은 일치를 이루어 그들은 모두 어둠으로 사라지며 암흑의 고요한 신성으로 돌아가게 된다.

VI장. 결론

교회연합신문이 조사하여 매년 초에 발간하는 교회연합주소록(2001년)에 보면 우리 나라의 기독교 인구는 1500만 명이라고 한다. 또한 우리는 메스컴을 통해 해마다 고위 공직자들의 기독교 분포율이 상승하는 것을 보게 된다. 많은 수의 기독교인이 있고 이 사회를 운영하는 주요직에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하지만 기독교가 이웃종교인들을 포함한 일반인들의 심정을 울릴만한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하늘과 땅이 원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기독교인들도 많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복음이 화석화되어 가는 책임은 기독교인 모두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종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종교의 원뿌리인 알맹이에서 멀어지면서 우물안 개구리처럼 편협한 형태와 상투적인 표현에 떨어지는 것은 가슴아픈 현실이다. 그러한 현실 속에서 종교들은 각각 고유의 외피, 곧 하나의 보편적인 생명의 싹들을 덮어버릴 자신의 껍질을 획득한다. 이에 마이스터 에크하르트가 한 일은 그 껍질을 깨트린 것이다.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려면 껍질은 깨져야 한다. 왜냐하면 만일 그대가 핵을 원한다면 그대는 껍질을 깨트려야 하기 때문이다.”¹⁴⁶⁾

에크하르트는 껍질을 깨트리는 사람이었다. 우상파괴주의자로서가 아니라, 생명이 자신의 부활하는 힘으로 자신의 껍데기를 깨트리듯 그것

146) ME 1, 251.

들을 깨트린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에크하르트를 프로테스탄트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에크하르트가 모든 존재의 창조적이며 궁극적인 근원을, 그것이 직접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유일한 곳에서, 곧 인간의 비물질적인 자아의 심층 속에서 분명히 밝히려 했다는 점¹⁴⁷⁾이 그것을 증명한다.

메튜폭스에 의하면 에크하르트의 사상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게도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 즉, 루터는 타올러를 통하여 에크하르트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고, 전생애를 통하여 그를 흠모했다는 것이다.¹⁴⁸⁾

에크하르트가 살았던 13, 14세기의 기독교 상황은 오늘날과 흡사한 점이 많다. 무엇보다 교회가 비대해지기 시작했으며 물질주의와 세속화로 치닫고 있었다. 그 속에서 '가난으로 돌아가자!', '공동체의 삶을 살자!'고 하는 교회갱신운동이 일어났다.¹⁴⁹⁾ 그러한 운동은 오늘날에 있어서 더욱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오늘의 교회는 가진 것이 없어서라기보다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다 보니 나눌 줄 모르게 되고 점점 교회가 지녀야 할 본래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신자개개인의 본래의 모습을 망각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여 부여받은 자신의 고귀한 신분으로 살지 않기에 헛된 것에 끝없는 욕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에크하르트는 이 점을 안타까워하며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가감

147) ME 1, 22.

148) Matthew Fox, *Western Spirituality*, 218. 류기중, 기독교 영성(서울 : 열림, 1994) 재인용.

149) 길희성 '에크하르트 영성의 현대적 의미' 강의 中 - 기독교시민연대 주최 제1기 평신도 아카데미. (한우리교회, 2001.6.4.)

없이 드러내며 우리가 그 자리로 돌아가 거기서 다시 출발할 것을 요구한다. 그 자리가 바로 ‘영혼의 불꽃’이다.

이와 관련해 김경재 교수는 ‘영혼의 불꽃’의 의의에 대해 말하기를 우리로 하여금 인간성의 근원적 본래성 - 그것을 진리자성(眞理自性)이라고 부르던, 천명지위성(天命之謂性)이라고 부르던, 혹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르던, 진실로 맘과 영혼이 가난해짐으로써 그 진면목을 회복하고 체험하도록 요청한다고 말한다.¹⁵⁰⁾

실로, 모든 사람 안에 있는 ‘영혼의 불꽃’을 발견하고 체험하는 것을 통해 각 사람은 자신의 참 모습을 발견하고 알게 될 것이다. 나아가서 자신의 뿌리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가 될 것이다. 아니, 원래 ‘하나’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것은 마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자신의 눈에 썩어 있던 비늘과 같은 것이 벗겨지는 체험과 같으리라. 그것을 통해 세상으로부터 결코 받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럼으로써 하늘과 땅이 원하는 교회를 위한 새로운 종교 개혁의 디딤돌을 놓게 될 것이다.

150) 한신논총 8호(1998), 127.

참 고 문 헌

<단행본>

Blakney B. Raymond., *Meister Eckhart: A Mordern Translation*. (New York: Harper Torchbooks, 1941) 이민재 역,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1,2 권 (서울: 다산글방, 1994).

Fox, M., *Breakthrough: Meister Eckhart's Creation Spirituality in New Translation* (New York: An Image Books, 1980).

Jeanne Ancelet-Hustache, *Master Eckhart and the Rhineland Mystics* (New York: Harper Torchbooks, 1957).

James M. Clark, *Meister Eckhart: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His Works with an Anthology of his Sermons* (London: Tomas Nelson & Sons, Ltd., 1957).

Armand A. Maurer, *Meister Eckhart: Parisian Questions and Prologues* (Toronto: Pontifical Institute of Medieval Studies, 1974).

Reiner Schurmann, *Meister Eckhart: Mystic and Plulosopher* (Bloom-ingtion: University of Indiana Press, 1978).

James Clark and John V. Skinner, *Meister Eckhart: Selected Treatises and Sermons Tranlated from Latin and German with an Introduction and Notes* (London: Faber, Ltd., 1958).

Gilson, E., *Reason and Revelation in the Middle Ages*. (New York: 1966) 강영계 역, 『중세철학입문』 (서울: 서광사, 1983).

Suzuki, D. T. *Mysticism: Christian and Buddhist*. (New York: Harper & Brothers Publishers, 1957) 강영계 역, 『에크하르트와 선』 (서울: 주류. 일념, 1982).

에텐 질송, 김기찬 역, 『중세 기독교 철학사』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5).

로버트 엘우드, 서창원 역, 『신비주의와 종교』 (서울: 이대출판부, 1994).

R. Otto, *Das Heilige*, 길희성 역, 『성스러움의 의미』 (왜관: 분도출판사, 1987).

엄두섭, 『신비주의자들과 그 사상』 (서울: 은성, 1992).

노종해, 『중세기독교 신비신학 사상연구』 (서울: 나단, 1994).

김경재, 『영성신학 서설』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5).

류기중, 『기독교와 영성』 (서울: 열림, 1994).

박영만, 『기독교 영성의 뿌리와 열매들』 (서울: 성광문화사, 1993).

<정기간행물 및 전집 류>

Matthew Fox, "Meister Eckhart on the Fourfold Path of a Creation Centered Spiritual Journey" in Matthew Fox, ed., *Western Spirituality: Historical Roots*, Ecumenical Routes (Notre Dame, Ind.: Fide/Claretian, 1979).

M. D. Knowles, "Deuifle and Ehrle", *History* LIV(1969), Cited by Armand A. Maurer, *Master eckhart: Parisian Questions and Prologues* (Toronto: Pontifical Institute of Medieval Studies, 1974).

문상희, "기독교와 신비체험", *기독교사상*15, 1971.

나학진, "신비주의에 대한 연구-종교윤리학의 관점에서", *신학사상*49, 1985.

노종해, "중세후기 기독교 신비주의에 대한 연구", *신학과 세계*5호(감신출판부1979).

변선환, 『한국적 신학의 모색-변선환 전집3: 이용도와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천안: 한신연 1997).

정달용,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의 생애와 저서", *중세철학 창간호*, 분도출판사, 1995.

전철,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의 신비주의" *한신논총* 8호(1998).

김경재,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의 신비주의 논평" *한신논총* 8호(1998).

『기독교대백과사전』, (서울: 기독교문사, 1984).

『브리태니커 세계 대 백과사전』 (서울: 한국 브리태니커, 1993).

<관련 석사학위논문 자료>

박현식, “초탈론(detachment)과 내재론(interiority)에 대한 이해 : 에크하르트와 무지의 구름을 중심으로”, 감리교신학대 신학대학원, 2001.

이형수,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의 근본 가르침 - ‘영혼에 있어서 신의 탄생’ 을 중심으로” 부산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00.

오성욱, “Meister Eckhart의 신비주의 윤리 연구”, 감리교신학대 대학원, 2000.

정은영, “수피주의(Sufism, 이슬람 신비주의)와 에크하르트 신비주의 비교 연구”, 장로회신학대 신학대학원, 2000.

김욱, “개혁의 영성 : 예수와 루터의 영성을 중심으로”, 장로회신학대 신학대학원, 2000.

이영희, “신비경건학의 아버지 요한네스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The Father of the Mysticism , Johannes Meister Eckhart)” 협성대 신학대학원, 1999.

신민주, “에크하르트의 ‘무심(無心)’ 과 불교의 ‘공(空)사상’ 비교 연구”, 한신대 신학대학원, 1999.

조용희,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의 신비주의”, 장로회신학대 신학대학원, 1998.

김이석, “에크하르트의 신비주의 사상 연구 : 에크하르트의 신론과 실천성을 중심으로”, 총신대 신학대학원 1998.

최승원, “마이스터 에크하르트的神비사상 : 시대적 사상적 배경과 사교의 유형을 중심으로 하여(Meister Eckhart's Mystic Thought)”, 협성대 신학대학원 1998.

노영실, “에크하르트의 신비주의 사상 연구 : ‘超脫’의 개념을 중심으로”, 연세대 교육대학원, 1995.